1998. 9. 15 창간

춘천 성시

vol.196

3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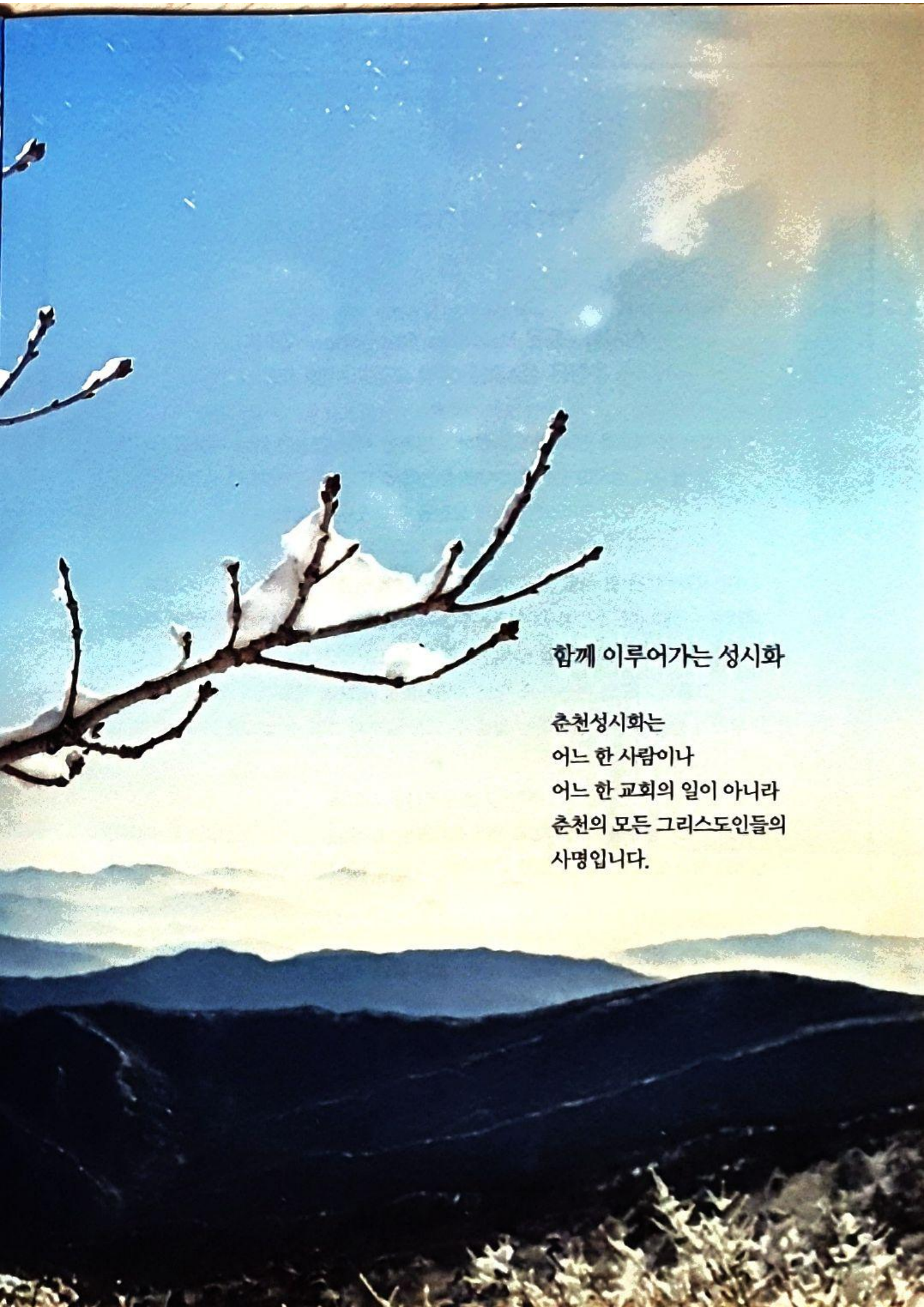
특집 우리아이 신앙교육은?
성시 동성애, 비상식적인 일
성시합창단 특별 공연
선교 몽골국제대학
통일 한국교회가 가져야할 통일론



박진용 간사(예스컴), 이승수 간사(JDM), 최인기 간사(IVF), 김마태 간사(어린이전도협회), 장소영 간사(CCC),
한수진 간사(인터콥), 조성우 간사(ESF), 김주미 간사(GBT), 김연희 간사(DFC), 윤진원 간사(예수전도단)

전 교회가 전 복음을 전 시민에게 전하여 행복한 시민, 건강한 가정, 깨끗한 도시를 만드는 춘천성시화운동 매거진





함께 이루어가는 성시화

춘천성시화는
어느 한 사람이나
어느 한 교회의 일이 아니라
춘천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입니다.

성시화운동은 Made in Chuncheon입니다.
춘천은 성시화운동의 모델도시입니다.

●

전 교회가 전 복음을 전 시민에게 전하여 행복한 시민, 건강한 가정, 깨끗한 도시를
만들고자 성시화 운동은 1972년 춘천에서 시작되어 전국과 전 세계의
도시 크리스챤들에게 도전을 주고 있는 운동입니다.

●

성시화운동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의 은혜에 붙들려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춘천성시화운동본부는 40여년이 흐르면서 이러한 사명에 붙들린
믿음의 선배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기도와 헌신이 또 다른 사명자들을 세웠고, 세워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사명을 감당하는 일을 주 오실 날까지 그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

춘천성시화운동본부 사역은
성시화, 선교, 통일을 사역주제로 삼아 성시포럼, 블레싱춘천, 성시화선교대회, 매거진
발행을 하고 있으며, 춘천교회와 지역사회, 다음세대를 세워가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 후원으로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의 사역에 동참해 주세요.
후원신청은 자동이체로 신청해주세요.

신협 131-005-937566 춘천성시화운동본부
농협 172242-51-085114 춘천성시화운동본부
[월 3,000원, 10,000원, 50,000원, 100,000원]
CMS신청문의 : 033.250.1260~1

Editor's Letter

사순절 기간인 3월에 온 성도들이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죄를 속하시려 십자가에 고난 당하신 주님을 묵상하며 우리의 허물과 죄를 통회 자복하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주님 외에 우리를 묶고 있는 학연과 지연의 담벽이 무너지고, 보수와 진보, 기성 세대와 젊은 세대, 큰 교회와 작은 교회의 차별의 굴레들을 벗어버리며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달려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달에는 우리의 자녀들이 새 학년, 새 학교로 새롭게 출발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입시경쟁에 내몰려 그야말로 학교생활이 지옥과 같다고도 합니다. 교회 내의 청소년 청년 사역도 정체되고 있고,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교회로부터 이탈되는 양상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갈수록 침체되고 있는 교회학교 사역을 어떻게 일으킬 것인가 고민하지 않는다면 우리 교회는 미래에 큰 위기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음 세대를 세우지 않으면 교회의 부흥은 요원한 일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시매거진은 독자층이 매우 다양해서 글을 쓰고 편집하는 과정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이 교단과 이 계층에 걸리는 이야기 같아 빼고, 거르다보면 나중에는 두리 뭉실한 글들만 제공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귀에 듣기 좋은 소리만 원한다면 우리는 영적인 앉은뱅이가 될 것입니다. 입에 쓴 약이 몸에 좋은 것처럼, 귀에 거슬리고 때론 마음에 찔리는 소리도 겸허히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교단과 계층과 이념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요청하시는지를 들을 귀를 준비하여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편집장 **최영조**

아동학대 예방, 우리 모두의 의무입니다.

강원도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 유 란 희

최근 어린이집 내에서 일어난 아동학대 사건으로 인해 온 나라가 떠들썩합니다. 누구보다 아이들을 보호하고 양육하는데 힘을 쏟아야 할 어린이집 교사가 어린 아동들에게 무자비한 폭행을 자행했던 사건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은 이번 사건을 보고 내 일처럼 마음 아파하고, 불안해하기도 하고, 또 안타까움에 눈물을 흘리기도 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특정 직군에 의한 사건들로 관심이 쏠리고 있지만, 지난 2013년 전국아동학대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아동학대 행위자 중 80%이상이 부모에 의해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지나는 사이에 아동학대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주변에서 장시간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으신 적은 없으신가요? 혹시 눈이 내리는 겨울에도 반팔 티셔츠에 반바지를 입고 돌아다니는 아이를 보신 적은 없으신지요?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주위를 둘러보면 우리의 도움을 기다리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서는 어느 누구만의 의무로 한정지을 것이 아니라 아이들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바로 여러분 모두의 관심과 적극적인 신고가 어려움에 처한 아이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대한민국 만들기는 우리 모두의 의무입니다.

※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의하면, 누구든지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으나 특히, 교사직군, 의료인직군, 공무원직군 등 24개 직군에 대해서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아동학대가 의심만 되어도 신고를 해야 하고 학대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최대 500만원까지 부과됩니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강원도아동보호전문기관
강원도 춘천시 후평1동 685-5번지
033.244.1392

Contents

Mar 2015 vol.196

Editor Letter 003

칼럼 004



026


034


040

※ 표지사진 재능기부 : 학곡리 사진관

006 **캘린더** Mar 2015

008 **3.1절 특집**

011 **만평/예향**

012 **사설** 다음세대를 향한 우리의 자세

014 **특집1** 요즘 우리 아이의 신앙교육은?

018 **특집2** 기독청년들의 자화상

023 **특집3** 4-14세대 살리기

027 **예수안에서 본 예술**

028 **성시화1** 동성애, 비상식적인 일

032 **성시화2** 춘천성시합창단 정기연주회

034 **선교** 몽골국제대학 박의범 부총장

036 **통일** 한국교회가 가져야 할 통일론

038 **시사** 거짓 사회에서의 그리스도인

040 **다음세대** 대안교육현장의 특별한 이야기

043 **시** 2월 3일

044 **기관** 춘천 몬테쏘리 어린이집

048 **설교** 삶으로 돌아가라

050 **영화산책 93** 예루살렘에 핀 샤론의 꽃

052 **예수의 미소 55** 내몸은 쓰레기통이 아니다

054 **좌충우돌건강이야기** 직장 스트레스 해소법

057 **음악이야기** 요한 세바스찬 바흐

058 **2월 이야기**

창간 1998. 9 .15 | **발행인** 대표회장 김창환, 본부장 지용찬, 사무총장 이병철

편집장 최영조 | **편집위원** 김춘배, 성낙환, 안세현, 이관형, 이영규, 이은정, 이병철, 조영춘, 최상도

발행처 춘천성시화운동본부 | **주소** 춘천시 금강로 120 강원CBS 3층 춘천성시화운동본부

전화 T) 033.256.1260~1 F) 033.257.1260 | **이메일** holycc1972@hanmail.net | **Design** 로딘어스

2015 3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

「 이달의 기도제목 」

♥ 이 민족에 다시 부흥의 역사를 주셔서 다음세대에게 믿음을 잘 계승하게 하시고, 통일한국의 주역들을 세우며, 제사장적 사명을 주 오실 날까지 감당하는 민족이 되게 하소서. 공교육이 올바른 역사교육과 가치관을 가르치는 교육현장이 되게 하셔서 마지막 시대를 감당할 수 있는 인재들이 세워지게 하소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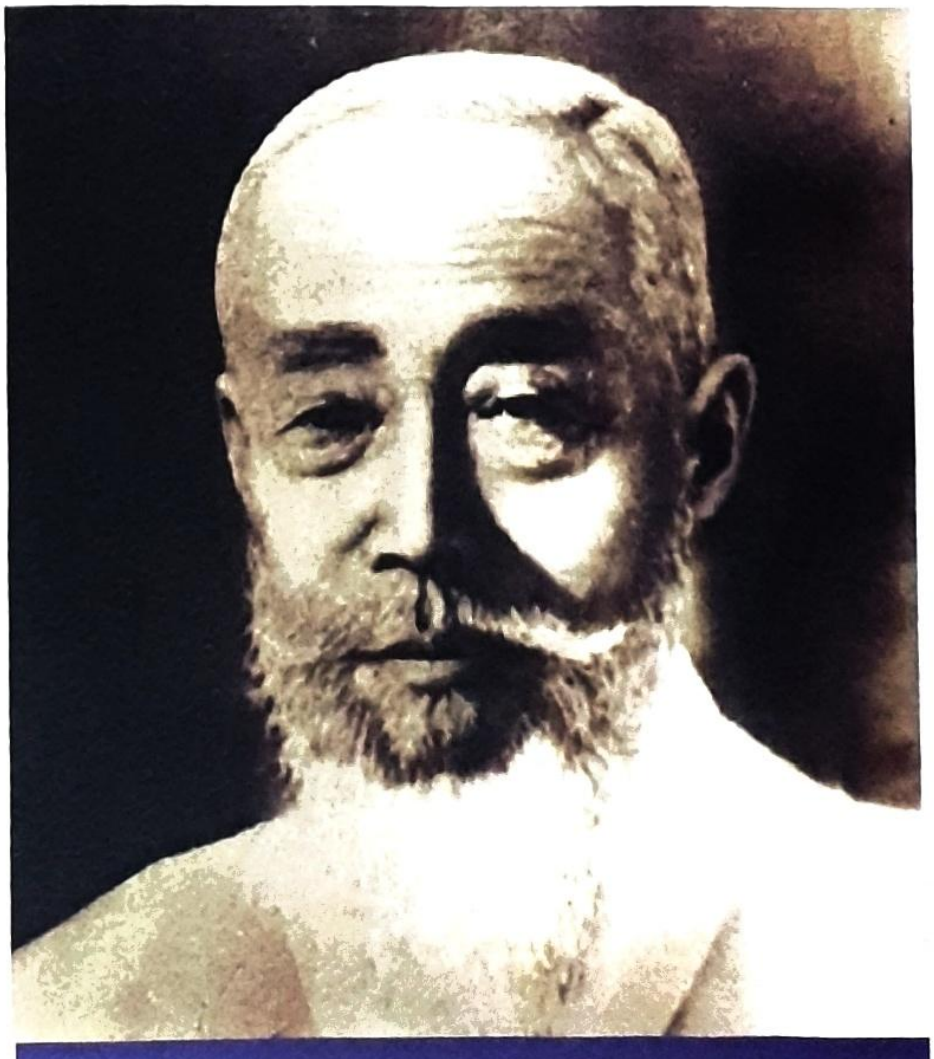
♥ 고난주간을 통해 다시 복음 앞에 서게 하시어 개인의 신앙이 회복되어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세워가며, 지역과 민족, 열방을 아우를 수 있는 영력으로 거룩한 영향력을 흘려 보내게 하소서. 주의 십자가의 은혜가 이 땅의 모든 교회와 목회자, 성도들에게 충만히 임하여 주시고, 주의 손이 함께 하심으로 예수로 흥왕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소서.

SUNDAY	MONDAY	TUESDAY
1 [집회] 3.1절 연합예배 저녁 7:30 석사감리교회 [JDM] ~7일 캠퍼스 33 중보기도 주간	**2** [DFC] 개강채플 ~14 동아리 홍보 및 설문조사 [JDM] 한국제자훈련원 25기 입학예식	**3** [어린이전도협회] 새소식반교사강습회 매주 화요일 (오전10시, 오 [예수전도단] 매주 화요모 오후 7시, 동부교회 **통일기도모임 매주 화요일** **오후 4시 주향교회**
8 [춘천기드온] 성광교회	**9** **[쥬빌리] 39차 기도회** **저녁 7시 15분, 주향교회** [IVF] QT 학교 강원 IVF 회관	**10** [예수전도단] 매주 화요모 오후 7시, 동부교회 **통일기도모임 매주 화요일** **오후 4시 주향교회** [예스컴] 각 학교동아리별 예배시작 핸퍼 훈련개강
15 [춘천기드온] 제일교회	**16** [세미나] ~17 497차 파노라마 성경 공개 세미나 춘천 중앙교회	**17** [예수전도단] 매주 화요모임 오후 7시, 동부교회 **통일기도모임 매주 화요일** **오후 4시 주향교회** **이슬림선교학교 개강**
22 **종려주일** [춘천기드온] 주향교회	**23** [GBT] 비전기도회 저녁 7시 예담교회	**24** [예수전도단] 매주 화요모임 오후 7시, 동부교회 **통일기도모임 매주 화요일** **오후 4시 주향교회**
29 **고난 주일** [춘천기드온] 석사감리교회/제일감리교회 **이호목사초청강연** **오후3시 제일장로교회**	**30** [DFC] 신입생환영 채플 [CCC] ~4.1 초중급JC전도훈련 [GBT] 선교학교개강 저녁 7시 예담교회 **통일광장기도회 저녁 8시** **석사교 하천무대**	**31** [예수전도단] 매주 화요모임 오후 7시, 동부교회 **통일기도모임 매주 화요일** **오후 4시 주향교회**

익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 이사야 53:5

WEDNESDAY	THURSDAY	FRIDAY	SATURDAY
천장로교연합회] 회지세미나및친교모임 전10시 춘천제일장로교회 시매거진] 시매거진 편집회의 오후 2시	**5** [JDM] 개강채플 [춘천기드온] 매주 조찬모임 오전 7시 미가 [예수전도단] ~6 전도세미나 오전 10시 효자감리교회	**6** [JDM] 15디모데훈련학교 개강 [CCC] 개강채플 [예스컵] 개강예배 오후 6시 예스컵 센터	**7**
	12 [GBT] 중보기도회 오전 10시 예담교회	**13**	**14** [홀리클럽] 실무위원회 오전 12시 제일장로교회 GMS 춘천 LMTC 7기 개강
	19 [IVF] 신입생 환영 LGM	**20**	**21** [예스컵] 프레이즈 오후 6시 중앙성결교회
5	**26** [CCC] 신입생초청전도집회 (여우사이) 저녁 7시 CCC회관 [GBT] 선교를 돕는 재능기부 오전 11시 예담교회	**27** [JDM] 신입생 환영회	**28** [성시합창단] 특별공연 "The Cross" 오후 7시 춘천문화예술회관

♥ 행사 일정 등록 문의 033) 256.1260 / holycc1972@hanmail.net



한서 남궁억의 믿음과 무궁화정신 되돌아보기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가로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삼상 7:12)



19세기 말 나라의 운명이 쇠할 때로 쇠하여진 풍전등화의 시기, 세계열강들의 문호개방 압력과 노골적인 일본의 침탈야욕에도 불구하고 쇄국 정책은 더해가는 가운데 갑신정변, 갑오개혁 등 국내외 개혁 세력들의 변화요구가 극에 달해가던 시기, 기독교 가치관에 의한 새로운 정신문화의 싹이 움트고 있었습니다.

한서는 관직에서 또는 독립협회 등 시민 운동가로, 언론인으로, 교육 사상가로, 믿음으로 나라를 구하고(신앙 구국), 가르쳐 나라를 세우겠다(교육입국)는 일념으로 새로운 시대정신의 한 축을 이끌어 온 우리의 정신적 지도자였습니다.

한서는 그의 호가 뜻하는바(서쪽을 향해 날아오르다 : 서쪽을 배운다)와 같이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는 서쪽의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하는 새로운 가치 체계에 의한 정신이 필요하다는 믿음으로 그의 나이 20세 늦은 나이에 우리나라 최초의 관립영어학교인 동문학에 들어가 영어를 배움으로써 서쪽을 향하여 날아오르기 위한 발판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23세 때 고종의 영어통역관으로 관직에 몸담고 있던 시기에 선교사들을 통하여 예수교를 받아들임으로써 그의 생애는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하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나라 사랑, 민족 사랑으로 풀이하면서 새로운 시대정신으로 시대를 이끌고 민족을 깨웠습니다. 이같이 한서의 믿음과 정신은 기독교 가치관에 의한 기독교 정신을 기본으로 삼고 있는데 이같은 그의 삶의 궤적을 돌아보면서 그가 남긴 글과 수많은 시조와 노래가사 등을 통하여 나타나고 있는 그의 믿음과 정신을 되돌아보려고 합니다.

한서는 우리를 도우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믿음에 따라 믿음만이 나라를 구할 수 있다는 신앙 구국의 정신으로 순교자적인 삶을 사셨습니다. 한서의 정신은 하나님 사랑으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자는 애국정신입니다. 을사늑약이 있은 다음 해 그가 부른「설악산 돌을 날라」라는 시조는 을사늑약으로 대한제국은 끝이 났으니 독립을 준비하되 왕정회복이 아니라 백성이 주인인 자유 민주 국가로 독립을 시키자고 노래를 하였습니다. 그의 정신은 독립 정신이고 자유 민주주의 정신을 담고 있습니다.

한서의 정신은 평등의 정신을 또한 담고 있습니다. 양반상놈, 남존여비의 사회를, 모두가 하나님의 한 형제자매임을 깨우쳐 인권평등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부녀자들에게 수본을 주어 민족혼을 깨우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무궁화 놀이를 가르쳐 나라 사랑을 일깨우고 농민의 지도자가 되라면서 소외계층을 보듬었습니다.

그의 정신은 근로의 정신을 말합니다. 반서

의 계급사회에서 근로정신은 일반화 될 수 없었습니다. 어느 특정 계층만이 일하는 사회였습니다. 한서는 말씀을 기초로「삼천리 반도 금수강산」노래 가사를 통하여 모두가 부름에 응답하고 일하러 가자고 근로의 중요성을 가르치셨습니다. 평등정신과 더불어 누구나 열심히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기를 가르치셨습니다. 그의 정신은 실용실천 정신을 또한 담고 있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지식인 또는 지도자들은 뿔뿔이 해외로 망명하거나 일부는 도시에 남아 자의반 타의반 일제에 협력하였으나 한서는 올곧게 일제에 항거하면서 당시 오지 중에 오지인 홍천 보리울에 내려가 희망을 잃고 좌절하여 퇴락해가는 소외 계층인 농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민족혼을 깨우기 위하여 그의 말년, 20여년을 신앙구국의 뜻을 몸소 실천하셨습니다.

그의 정신은 자조자립의 정신을 말합니다.「독립은 반드시 온다! 독립의 후를 준비하라!」는 당부와 함께「우리 손으로 만들어서 우리나라 사람이 운전을 하면 그 때 타겠다.」면서 자동차 타기를 거절하신 분입니다.

그의 정신은 또한 농촌 계몽정신입니다.「농민의 지도자가 되라」고 지식인들에게 권하면서 농촌을 깨워야 독립이 가능하다는 믿음으로 보리울에서 무궁화를 기르고 전국에 보내면서 농민을 깨우치고 아이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자연 사랑의 정신을 또한 담고 있습니다. 국내최초로 서울 도심에 공원을 조성하였으며, 양양에서는 역시 최초로 계획 조림을 하는 등 100여 년 전, 자연보호의 개념으로 자연 사랑 정신을 실천하셨습니다.「내가 죽거든 과목나무 밑에 묻어 거름이 되게 하라」는 유언은 지금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 크다 하겠습니다. 이같이 한서의 믿음과 정신을 되돌아보면, 특별히 그의 정신을 설명하고 가르치고 권면할 때 반드시 무궁화를 매개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3송이 무궁화 꽃으로 지도 자수본을 수놓으면서 나라사랑을 배우고, 아이들은 무궁화 노랫말로 놀이를 통해서 민족혼을 깨우치게 하고, 무궁화 묘목을 기르면서, 전국에 보내어 심게 하면서, 무궁화의 생태를 통하여 우리 민족의 우월성을 가르치셨습니다.

이처럼「신앙구국」,「교육입국」으로 표현되는 그의 정신을 무궁화 사랑으로 설명하고 가르치셨기에 우리는 그의 믿음과 그의 정신을 특별히「무궁화 정신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근세사 암흑기 시대정신의 한 축을 이루며 민족을 이끌어 왔던 한서의 믿음과 무궁화정신은 1930년대 농촌계몽운동으로 전국에 가지를 뻗게 되었으며, 1950년대 가나안정신으로 꽃 피웠으며, 1970년 이후 새마을 정신으로 이어져 내려와 지금도 우리 속에 함께하는 시대정신이며 시민정신이라 생각합니다.

한서의 믿음과 무궁화 정신은 분열되어가는 이 사회를 통합할 수 있는 통합의 정신으로, 남북통일의 디딤돌로 쓰일 통일 정신으로, 새마을 정신과 함께 세계 선교에 이바지할 오늘의 시대정신으로 갈고 다듬어 나가야 할 시대정신이라 생각합니다.

글 / 신현모장로(한서선교회 회장)

만평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은 술 취한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잠 26:9)
술 취한자의 손에 든 가시나무가 자신과 타인에게 상처를 입히듯이 미련한 자가 베푸는 지혜로운 듯한 교훈이 결국 해를 가져다 준다.
아울러 우리들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른이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도록 늘 언행을 조심해야 할것이다. 이것이 첫번째 전도방법이다.

그림 / 이관형 기자

예향

순종의 축복

기록에 보면 페스트가 유럽에서 크게 창궐할 때 이상하게 유태인들이 사는 마을은 페스트가 피해갔다고 한다. 그래서 유태인들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유태인들이 페스트를 퍼뜨렸다고 소문을 내어서 적지 않은 유태인들이 성난 군중들에 의해 2차 피해를 입었다. 그러면 유태인들에게 왜 페스트가 피해갔을까?

유태인들은 레위기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이다. 레위기를 읽어보면 "손을 씻으라. 손을 씻으라."는 말씀이 반복해서 나온다. 그들은 율법에 따라 제사하기 전에 손을 씻었다. 거룩한 성경을 읽기 전에도 손을 씻었고, 회당으로 모이기 전에도 손을 씻었다. 당시 사람들은 전염병이 세균을 통해 감염된다는 사실을 몰랐다. 유태인들도 전혀 몰랐다. 단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다보니까 저절로 죽음의 재앙이 피해간 것이다.

지금도 마찬가지이다. 왜 놀 일이 많은데 주일을 지키라고 하느냐, 사회생활을 해야 하는데 왜 자꾸 술과 담배하지 말라고 하느냐, 재물은 주님께 꼭 먼저 드리고 쓰라고 하느냐 등 이해가 안 가더라도 순종하는 것이 좋다. 나중에 보면 꼭 그렇다.

글 / 최상도 기자

다음세대를 향한 우리의 자세

물질만능주의와 죄로 인한 도덕적, 윤리적인 문제들로 인해 타락하고 있는 이 시대에 많은 어린이들이 상처와 아픔을 지닌 채 살아가고 있으며 청소년들의 자살률이 늘어가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상황에서 교회의 사회적 신뢰도는 어떠한가? 교회의 사회적 신뢰도는 좀처럼 쉽게 높아질 것 같지 않다. 과거 어느 때보다 전도가 어려운 것도 문제지만 앞으로 우리 사회의 주류가 될 다음세대가 한국교회를 불신하고 있다는 사실이 더 큰 문제이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기성세대들은 이런 질문을 던져야 한다. 다음세대들이 왜 흔들리는지? 흔들리는 다음세대들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교회의 미래를 생각할 때 다음세대의 근본적인 위기는 교인수의 단순한 감소 그 자체보다, 교회 안의 세대간 불균형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한국교회는 한국사회 전체의 문제로 나타나고 있는 저출산과 고령화의 문제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교회 공동체의 세대균형의 기초라 할 수 있는 '신앙전수율' 이 그보다 더욱 낮은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교회의 '노령화' 내지는 '교회 안의 세대간 불균형현상' 이 한국교회에서 더욱 심각한 위기인 이유는 바로 '교회 안의 세대간 불균형 현상' 이 한국사회 전반의 '세대간 불균형' 정도를 훨씬 넘어서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 교육적으로 중요한 하나는 바로 '신앙전수율' 의 저조함이다. 여기서 '신앙전수율' 이란 부모가 믿는 종교를 자녀가 그대로 물려받는 것을 비율로 나타낸 것인데, 이 '신앙전수율' 이 낮다는 것은 그동안 한국교회가 다음세대를 향한 적극적인 전도나 양육은 고사하고, 자신의 자녀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노력마저 게을리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성경에 보면 신앙전수에 대한 수많은 성공과 실패가 기록되어 있다. 그 중에서도 모세와 여호수아 세대를 한번 살펴보면 모세의 세대는 출애굽의 세대이고 여호수아의 세대는 가나안정복의 세대이다. 모세의 세대가 실패의 세대인가? 물론 이들은 자기들의 신앙을 지키지 못한 실패의 세대이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들은 다음세대의 교육은 성공한 세대가 되었다. 모세의 세대가 바로 다음세대인 여호수아 세대에게 신앙전수를 성공했기 때문에 여호수아 세대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가 있었다. 모세의 세대와 여호수아의 세대만 보더라도 신앙전수율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알 수가 있다. 그렇다면 이렇게 낮은 신앙전수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무엇보다도 전 공동체가 교육과 목회의 이분법을 넘어서

그 둘을 통전적으로 이해하고 강화하는 교육목회적 접근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부모 세대는 교육적 접근을 강화하는 교육목회를 하여야 하고, 자녀세대는 목회적 접근을 강화하는 교육목회를 기본으로 해야 하며, 세대별 독립성과 전 공동체의 정체성을 통전하는 교육목회를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한국교회는 복음에 대한 확신, 열정과 함께 다음세대의 문화를 정확히 이해하고, 복음적 관점에서 비판하고 수용하는 일에 힘써야 할 것이다.

또 다음세대의 위기는 '학부모들의 잘못된 인식' 이다. 주일학교 어린이들과 중고등부 학생들을 위한 캠프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캠프의 주요대상인 중소형교회에서의 참여가 갈수록 적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대신 이들 교회들은 캠프의 대안으로 자체 수련회나 비전트립 등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인솔교사 부족이나 미숙한 프로그램 진행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문제들은 학생들의 영성저하로 이어지게 된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큰 문제는 학생들의 영성훈련을 수련회나 캠프에만 의존하려는 현실이다. 또한 자녀들의 신앙보다 학업을 더 우선시 하는 학부모들의 인식이 가장 큰 문제이다. 개교회마다 방학기간 캠프나 수련회를 준비하며 겪는 큰 난관이 바로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다. 과거 학부모들은 수련회 기간이면 어김없이 학생들을 수련회로 보냈다. 학업도 중요하지만 자녀들의 영성훈련을 더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엔 반대로 보충수업이나 학원 등을 이유로 자녀들을 수련회에 보내지 않으려는 학부모들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이러한 이유로 담당 교역자들은 매번 방학마다 일일이 학부모들을 찾아다니며 자녀들을 수련회에 참석시켜 달라고 부탁하기 바쁘다. 청소년 수련회와 캠프가 보다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학부모들의 인식전환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교역자들이 아무리 학생들의 신앙훈련을 위한 수련회와 캠프를 준비한다 하여도, 기본적으로 학부모들의 인식이 달라지지 않는 이상 갈수록 줄고 있는 참여학생의 수는 증가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이 글을 통해 다음세대의 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 했지만, 셀 수도 없이 더 많은 문제들이 산재해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고 회복하는 방법이 하나 있다. 바로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다(행 2:42)". 기성세대들이 다시금 말씀으로 돌아가고 눈물의 기도를 회복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다음세대들을 회복시키시고 그들의 발걸음을 교회로 인도할 것이다. 그 옛날 한국교회가 부흥할 때를 떠올려야 할 때이다. 그때는 말씀이 있었고, 순종이 있었고, 사모함이 있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눈물의 기도가 있었다. 다시금 기성세대들이 눈물로서 호소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부르짖을 때 다음세대들이 회복 되어지고 우리 교회들이 회복 되어지고 더 나아가 이 나라, 온 세계 열방이 회복되어 질 것이다.

글 / 이수형 목사
(춘천성시화운동본부 부이사장, 순복음춘천교회)

요즘 우리 아이의 신앙교육은 잘하고 계신가요?

우리들 서로에게 묻고 싶은 질문이다. 대부분의 부모들은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학교성적과 대학진학을 위한 공부에 대해서는 열의를 가지고 있다. 또한 내 아이의 진로를 위해 여러 가지 학원을 다닐 수 있도록 물질과 시간으로 투자하는 부모들은 많다. 하지만 우리아이의 신앙교육을 위해서는 노력도 투자도 하지 않는 시대를 살고 있다. 아이가 주일예배에 참석하는 것으로 모든 신앙교육을 다했다고 생각한다. 가정에서 아무런 노력도 없이 신앙 안에서 잘 자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하고 있다. 또한 학교교육으로 신앙교육은 단절되고 우리 아이들의 신앙교육은 방치되고 있다.

교회학교의 현실은 냉혹하다. 주일학교는 어른들이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한 탁아소로 전락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주일날 교회에 오면 가족은 아이들과 단절된 형태의 예배를 드리고, 우리 아이가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담당교사가 누구인지, 주일학교의 비전은 무엇이고 교육의 목표는 무엇인지 아는 학부모는 거의 없다. 중고등부로 올라가면 사정은 더욱 열악해 진다. 표면적으로 양적 숫자는 확연히 줄고, 어른예배에 주변인으로 참가하는 경우가 많아진다. 신앙의 성장은 멈추고 교인으로 주일에 한 번 참석하는 학생으로 등록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무엇보다도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예배가 사라지고 있다. 가정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배우고 부모의 모습을 통해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영적 지도가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가정예배는 부모와 자녀간의 일상적인 대화 ✝ 경말씀을 통해 가장 기초적인 성

경공부가 되며 교육이 된다. 그리고 자녀의 신앙의 관점을 점검하고 교회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다시 복습하거나 물어볼 수 있는 좋은 대화의 장이 된다. 하지만 우리에게 가정예배는 사치가 되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부모의 마음과 시간을 내놓지도 못하고 사춘기를 지나는 자녀들에게는 가정예배가 부모의 잔소리의 장이 되어 버리곤 한다. 부모의 신앙교육 없이 주일예배를 참석하는 것으로 교회가 알아서 모든 신앙교육을 해 줄 것이라는 착각을 하고 있다. 또한 우리는 일주일에 단 한 번 그들을 교회에 던져놓고 우리의 책임은 여기까지입니다. 라고 부모의 책임을 교회에게 돌린다.

그렇다면 교회는 어떠한가? 주일학교 교사는 전문화되고 준비된 교사들이 없다. 왜일까? 교회학교를 통해 성장한 청년들의 숫자는 점차 줄고 사명감을 가지고 봉사하는 경우는 더욱 극히 드물다. 체계적인 성경교육을 받지 못한 상태로 청년의 나이가 되어 봉사하는 악순환의 구조를 가지고 주먹구구식 성경공부를 하거나, 아무런 영향력을 줄 수 없는 교사가 된다. 대형교회는 청년들이 존재하지만 작은 교회는 아이들을 가진 학부모들이 품앗이 봉사활동으로 교회학교를 대신한다. 교회학교의 현실은 어머니교사와 소수의 청년들로 이루어진 봉사활동 조직이 되었다. 자신을 전문 주일학교 교사라고 생각하는 성도들을 찾아보기 힘들다.

교회는 여전히 주일학교의 교육은 담당목회자를 통한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과 이전에 늘 해오던 예배 후 성경공부가 교회의 책임을 다한다고 생각한다. 더불어 이 모든 활동이 어른예배와 동일한 시간에 시작하고 끝나야 한다. 이 후의 활동은 사라졌다. 교회도 가정도 아이들을 위해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지 않는다. 우리 자녀들의 신앙교육은 어른예배를 잘 드리기 위한 하나의 도구가 되었다. 이러한 주일학교 교육도 초등학교를 끝으로 중학교부터는 어른예배를 참석하는 것으로 대신한다. 다른 활동은 학교수업과 학원에 밀려 할 수도 없고,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교회 활동은 제한된다. 이것이 우리의 교회교육의 현실이다. 누구도 부인하지 못한다. 세상의 진로가 교회의 성공이 되었다. 좋은 대학을 간 것이 신앙이 좋은 아이가 되었다. 과연 그런가? 우리 아이의 신앙교육은 좋은 대학 좋은 직장으로 대변될 수 있는가?

가정과 교회는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다. 교회는 아이들의 성장을 통해 교회의 가장 중추적인 젊은 세대를 이끌어갈 청년으로 자란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다. 부모는 신앙교육을 통해 세상에서 살아남는 법만을 알려줄 뿐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하는지 신앙의 전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교회학교 교육은 우리 교회의 미래다. 우리 아이들이 미래의 교회 지도자가 될 것이다. 부모는 아이와 함께하는 예배를 만들어야 한다. 부모의 모범은 예배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그

리고 더 나아가서 교회의 주일학교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내 자녀의 공과교제는 무엇이며, 담당교역자와 혹은 담임교사와 신앙상담을 해야 한다. 우리 아이의 예배시간의 태도, 성경지식등을 묻고 관심을 가져야 한다. 더불어 지금 무엇을 배우고 있는지 교회학교의 한 해의 목표와 행사계획을 파악해야 한다. 이러한 관심은 교회가 교회학교교육에 대한 투자를 상승하는 동반성장의 효과를 낳는다. 교회학교 유초등부의 질적 성장은 자연적으로 중고등부 청년부로 이어지도록 부모의 적극적 개입과 교사들과 유대를 통해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초등학교에서 끝나는 교육이 아닌 평생교육으로 가는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 가정에서 시작된 예배는 교회학교 성경공부에 영향을 받는다. 가정에서 예배의 원칙을 가르치고 예배의 마음을 배운 아이들은 주일 예배시간에 다른 행동을 하거나 예배의 분위기를 해하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 이러한 유기적 연합을 통해서 주중에는 가정에서, 교회학교는 심화된 성경공부와 예배를 배울 때 우리의 아이들은 질적인 성장을 가져올 수 있다.

교회학교교사는 전문화된 교사를 만들 수 있는 자원을 계속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고 사명을 감당하는 기회가 제공되는 교회학교가 된다. 교회학교교사는 일주일에 한 번 하는 봉사활동이 아니다. 생명을 살리고 아이의 신앙을 책임진다는 섬김과 사랑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는 최선봉에서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이러한 사명감을 가진 교회학교 교사의 헌신을 통해 배운 아이들은 성장하여 교회학교 교사가 된다. 이러한 순환적 교회학교가 우리에게 질적 성장과 주일학교를 보는 시각을 달리할 것이다. 교회는 프로그램 재미를 위한 교육이 아닌 말씀 중심으로 가르쳐야 한다. 본인은 얼마 전 대학생 수련회를 참석해서 설교했던 기억이 있다. 그때 "다윗과 밧세바"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놀라운 사실은 그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처음 들었고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있냐며 웃었다. 교회학교 예배는 단지 시간을 때우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의 역사인 성경이야기를 교사가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들려주는 재미있고 즐거운 시간이 되어야 한다. 아이들에게 체계적인 성경공부가 되도록 계획을 세워야 한다. 일 년의 계획뿐 아니라 다년간의 성경공부 계획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성경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교육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교사를 교육하고 성경이야기 전문가를 만들어야 한다. 교회는 교육에 투자할 때 성장함을 알아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부모 된 우리는 내 아이의 신앙은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내가 자녀에게 물려줄 가장 큰 재산은 신앙이다. 자녀를 위해서 조직이 잘 된 큰 교회의 교회학교를 찾아가는 부모들을 보았다. 부모의 영적인 헌신 없이 자녀에게 신앙을 물려줄 수는 없다. 교회가 하는 것이 아니다. 의식을 바꿔야 한다. 부모가 자녀 신앙교육의 밑거름이 되어야 함을 기억하기 바란다.

글 / 성낙환 기자
pastols@naver.com

주일학교 현직교사가 들려주는 이야기

나의 경험으로 보면 주일학교 때 다져진 신앙의 기초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어린 주일학교시절이 생각나는데, 일주일의 하루였지만 교회에 오면 편했고 늘 즐거웠다. 나중에는 성가대도 하고 주일학교 선생님이 되어야지 하는 꿈을 꾸었다. 그렇게 신앙의 기초가 다져졌고, 커가면서 어려운 일을 겪을 때는 흔들리기는 했으나, 떠나지는 않게 되었다. 사실 주일학교 때 꿈꾸었던 모습이 지금의 내 모습이다. 주일학교는 참 중요하다. 그러나 요사이 주일학교 분위기는 예전과 같지 않다. 아이들을 모이게 하는 것도 힘들고 봉사할 교사를 구하는 것도 힘들고 넉넉한 재정을 보장받기도 힘든 곳이 되었다. 아이들은 줄고, 사명의식을 가진 교사도 줄고, 교회학교 성장에 관심을 쏟는 목회자, 성도들도 줄어가는 것이 안타깝다. 그러나 생각을 바꾸면 쉽게 답을 찾을 수 있는 것 같다.

먼저, 교회를 즐거운 곳으로 바꾸는 것이 바로 문제 해결의 시작이 아닐까 생각한다. 중요한 것은 교사의 역할이다. 아이들에게 신앙의 기초를 만들어 줘야 한다는 의무감이나 권위의식에 사로잡혀 앞서 가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과 함께 놀아야지 라는 마음으로 즐겁게 임하는 것이다.

또 하나는 교사에게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 교사라는 자리가 부담스럽고 하기 싫은 자리가 아니라 하고 싶어서 누구나 원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 내에서도 교사들을 많이 위로하고 높여주면 자신의 자리에 뿌듯함과 자부심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우리 교회는 주일학교 예배 시작 전에 아이들과 먼저 대화를 한다. 일주일간 있었던 일들을 아이들부터 교사들까지 이 얘기 저 얘기하며 나눈다.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찬양하고, 또 이야기를 나누며 예배로 이어진다. 교사와 학생이 서로를 잘 안다는 점이 주님 안에서 하나의 가족으로 묶어주는 연결 고리가 되는 것이다. 교회에 오면 편하고, 즐겁고, 그리고 언제나 나만의 자리가 있는 그런 곳이 되어야 한다. 성경공부도 말씀이 들어간 찬양을 한다거나 다양한 게임, 성경퀴즈 대회, 도전 골든벨 같은 것들을 통해 흥미를 유발하면 주입식으로 가르치는 것 보다 더 오래 기억되게 하는 효과가 있는 것 같다. 요즘 아이들이 좋아하는 연예인, TV프로에 대해서도 함께 이야기도 나누며, 게임에 접목시킨다면 오히려 학교에서 못해 본 것들을 교회에서 한다고 더 즐거워하고 주일을 기다리게 될 것이다. 성도들이 주일학교 아이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한 번씩 불러주며 칭찬해 주고 하는 것도 아이들은 따뜻한 관심을 받고 있구나 라는 생각하게 된다. 우리 교회 주일학교 학생 수 보다 교사가 훨씬 많을 때도 있었으나 오히려 더 신나게 함께 놀았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아이들은 꾸준히 예배에 나오게 되고 졸업한 아이들이 중고등부를 거쳐 청년이 되고, 주일학교 교사가 되어 아이들을 돌보게 되었다. 교회 안에서의 분위기부터 바꿔야 한다. 주일학교에 1년 투자해서 성과가 없으면 관심을 끊는, 마치 장사하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된다. 꾸준한 긴 시간과 아까워하지 않는 재정 그리고 그 무엇보다 간절한 기도와 관심이 주일학교를 살릴 수 있다.

글 / 한길감리교회 우승미 교사

학복협 한국대학생의 의식과 생활에 대한 연구에 나타난

기독청년들의 자화상



지금 한국교회는 '상실의 시대'를 살고 있다. 청춘의 힘, 다름 아닌 젊음을 상실한 것이다. 교회를 떠나가는 청년들이 늘면서 캠퍼스 사역은 몇 년째 전략 마련에 고심하고 있고, 교회와 선교단체가 발을 동동 구르는 사이 비기독 청년들의 교회 유입마저 줄어드는 상황이다.

무엇이 문제일까? 원인을 알기 위해선 오늘을 사는 청년들의 현실을 가만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중간 어른'의 위치에서 성적을 고민하고, 사랑을 고민하며, 결혼과 취업을 고민하는 그들. 그 안에는 빠르게 세속화되는 사회 속에서 '신앙'이 흔들리는 기독청년들이 있다. 교회를 외면한, 아니 어쩌면 교회가 외면했을지도 모르는 그들의 오늘을 쫓아가봤다.

2012년 10월 학원복음화협의회가 발표한 '한국대학생의 의식과 생활에 대한 조사연구' 결과는 기독청년들의 자화상을 여실히 보여줬다.

전국에 있는 1,359명의 대학생 및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세속화'의 빠른 진행이었다. 혼전성관계, 동성애, 미혼모 문제 등에 대한 학생들의 성윤리 의식은 일반 학생들과 다르지 않았다. 혼전 순결을 지키겠다는 기독학생은 전체의 22.8%에 그쳐, 80%에 가까운 학생들이 혼전 성관계가 가능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로 성관계 경험이 있다고 답한 기독학생 가운데 80% 가량이 대학 재학 중 성관계를 처음 경험했다. 동성애를 인정해 줘야 한다는 기독학생도 44.1%로 나타나 '인정할 수 없다'는 응답(42.7%)과 비슷한 수치를 보였다. 미혼모(미혼부)가 됐을 때 아기를 '낳지 않겠다'(52.6)는 학생이 '낳겠다'(47.4%)는 학생보다 많았다. 학복협은 이러한 성적인 개방화가 해를 거듭할수록 심화되고 있음에 주목하고, 앞으로도 건전한 성윤리 의식의 확립이 시급함을 강조했다. 목회자 윤리 문제와 더불어 한국교회의 부패함이 어디까지 미치고 있는지 드러내주는 대목이다.

이제 교회 안으로 들어와 보자. 요즘 대학생들은 선교에 대한 관심이 거의 없다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다. 조사에 응한 전체 대학생 중 기독학생의 비율은 17.2%, 이 가운데 선교단체에서 활동한다고 답한 학생은 7.6%가 전부였다. 절반(48.9%)에 가까운 학생들이 '활동 경험도 없고 의향도 없다'고 답했다. '참여한 적은 있지만 현재는 아니다'라는 학생은 13.9%로, 현재 활동 중인 학생의 2배에 가까웠다. 이에 대해 조성돈 교수(실천신대 목회사회학)는 "약 50%에 이르는 기독학생이 참여 의향조차 없다는 것은 선교단체도 경각심을 가질 문제"라며 "학생들이 선교단체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조언했다.

기독청년들의 이와 같은 의식 변화는 한국사회의 청년들이 맞닥뜨리고 있는 현실의 문제들과 깊이 연관돼 있다. 한 마디로 요즘 우리나라 청년들의 현실은 아프고 고단하다. 어른들만 아프고 고단한 것이 아니다. 젊은이들도 그 못지않은 무게만큼 힘들어한다. 최근 20대 청년층의 우울증과 자살률 급증이 이를 반

중한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3년 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청년층 고용률은 39%로 14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정부는 청년 실업자 수를 약 30만 명으로 집계하고 있지만, 불완전취업자와 취업 포기자, 준비생 등까지 포함하면 100만에 가까울 것으로 업계는 분석하고 있다. 취업 뿐 아니라 '집 구하기'도 하늘의 별 따기다. 자취생들을 대상으로 한 대학가들의 월세 경쟁은 흡사 전쟁을 방불케 할 정도다. 학생들은 월세를 마련하고 학비를 벌기 위해 공부할 틈 없이 아르바이트를 해야 한다. 학업이 본분인 학생이 돈 버느라 공부를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이다.

지난 2011년 김난도 서울대 교수의 책 〈아프니까 청춘이다〉에 수많은 청년들이 열광한 것은 이러한 자신들의 현실을 같은 눈높이에서 공감해 준 어른을 향한 열렬한 지지였다.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된 직후 김 교수는 어느 공개석상에서 "이 책이 많이 팔린다는 것은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미래에 대해 두려워하고 있는가'를 절실히 보여주는 지표"라며 "지금의 대학생들이 이토록 두려워하는 이유는 '소비주의' 때문이다. 그래서 빨리 안정을 이루고 싶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현실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청년들에게 교회는 더할 나위 없는 따뜻한 품이 돼 줄 수 있다. 어쩌면 지금 한국교회는 그 어느 때보다 청년들의 발길이 분주해야 할 시기일지 모른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 왜일까. 교역자들의 열정이 부족해서도, 프로그램이 없어서도 아니다. 오히려 변하지 않는 열정과 프로그램이 문제라는 목소리가 높다. 빠르게 변화하는 청년들의 의식과 트렌드를 쫓지 못하고, 실질적인 고민을 나누지 못하는 교회의 열정과 프로그램 안에서 더 이상 위로와 힘을 얻지 못하고 떠나간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최근 대사회적 신뢰 하락과 함께 교회의 이미지가 크게 실추된 점도 청년 전도를 어렵게 해 교회 유입을 막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라 풀이된다.

이에 캠퍼스 사역 전문가들은 교회가 '우물 안 개구리' 수준을 넘어서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사역의 안목을 넓히고 패러다임의 변화를 시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학복협의 장근성 총무는 "한국의 대학생들은 현실주의적이며 실용주의적이고 세속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기독교는 교회와 선교단체라는 우물 안에 갇혀 있는 경향성이 많다"며 "복음의 회복, 윤리, 도덕적인 삶의 회복을 위해 기독인들이 교회와 선교단체의 우물 밖으로 나가 세상의 대안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 캠퍼스 선교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선교 주체의 다변화"라며 "각 주체들이 서로 대화하고 협력할 수 있는 시스템을 형성해 연합과 동역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일각에서는 다음세대 위기론을 이야기하지만, 위기는 또 다른 기회로 받아들일 수 있다. 한국교회가 표류하고 있는 기독청년들의 이정표가 되고 나아가 어머니의 품이 될 수 있도록 함께 연합하여 골몰해야 한다.

글 / 안세현 기자
yelloworm@gmail.com

GBT 선교학교

선교 관심자와 헌신자를 대상으로 하는 훈련 과정으로
10주 동안(주1회) 선교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공부하고 체험하게 된다.

주의 말씀이 두루 퍼지니라

(행 13:49)

THE WORD OF LORD
SPREAD THROUGH THE WHOLE REGION.



선교일반 과정 God's Perspectives

선교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과정으로
성경적, 역사적, 문화적, 전략적, 동역적인 관점에서 선교를 배우게 된다.

성경과 선교 과정 Bible Translation

복음이 절실히 필요한 미전도 종족과 성경이 없는 부족에 초점이 맞춰진 과정으로
성경 번역, 문해 교육과 같은 언어 사역과 컴퓨터, 교사, 종족 음악, 교회 사역 등과
같은 전략적 사역에 대해 배우게 된다.

선교준비 과정 Short-term Preparation

장, 단기 사역에 헌신하고자 하는 선교 관심자와 후보생들이 선교사가 되어
사역 현장에 나가기까지의 과정을 실제적으로 도와 주는 선교 훈련 심화 과정이다.

1. 춘천지부 개강
   - 성경과 선교(BT)과정 : 3월 30일(월)
   - 선교 일반(GP)과정 : 3월 26일(목)
   - 강의 장소 : GBT 춘천지부 사무실(예담교회 내)
   - 문의 : 김주미 사무장(010-9109-9218, chuncheon@v2025.or.kr)

2. GBT 춘천지부를 후원하는 교회
   - 화목교회, 예담교회, 춘천우리교회, 춘천장로교회,
   - 호반장로교회, 주향교회, 늘사랑교회

개설지역 및 캠퍼스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서울 수원 인천 전주 창원 천안 청주 춘천 포항 세종 울산 홍성
총신신대원 장신신대원 합신신대원 칼빈신대원 백석신대원 고신신대원 웨민신대원 한동대
문의 070.8670.6355 / wschool@v2025.or.kr

GBT 성경번역선교회
www.gbt.or.kr



캠퍼스 사역에서 마주하는 어려움과 고민

지난 2월 초에 간사들과 여름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캠퍼스 현황에 대해 나누는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 때 나누게 되었던 내용들을 나름대로 정리하고 덧붙여서 보내드립니다.

1990년대 말 2000년대 초중반에 대부분의 선교단체들은 학생사역의 부흥을 경험했었습니다. 선교단체에 소속되어 활동하는 학생들의 수도 많을뿐더러, 학생들이 주체가 되어 캠퍼스 내에서 전도활동 등을 비롯해 여러 활동들이 활발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러다가 2000년대 중반을 거쳐 후반에 이르러서는 참여하는 학생들의 수가 계속해서 감소하고, 활동들 또한 정체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캠퍼스 사역에 있어 어려움이 되는 요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무엇보다 캠퍼스의 상황변화가 크게 다가옵니다. 여러 변화의 내용들이 있지만 가장 크게 느끼는 어려움을 두 가지 정도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취업에 대한 두려움과 압박감입니다. 취업에 대한 과도한 부담감과 압박은 이제 3~4학년들에게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학생들이 입학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러한 부담들을 느끼는 것을 보게 됨



니다. 학교 정규과정과 더불어 그 외 여러 기타과정이 학교에서 운영되고, 평가방식이 바뀌어 학업에 대한 부담감도 커지다보니 학생들에게 스스로 고민하거나 자신을 돌아볼 여유조차 없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부담과 압박 가운데 모두가 정해진 길을 따라가는 것이 당연하게 되면서 학생들에게는 꿈보다는 현실의 짐이 더 크게 느껴지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 한 대학생이 교내 게시판에 대자보로 붙였던 글 중에 "꿈꾸는 것이 꿈이 되어버린 세대"라는 말이 있었는데 이 말은 대학생들의 심정과 상황을 너무나도 잘 반영해주고 있습니다. 점수를 통해서만 자신이 무엇을 잘하는지를 확인하는 세대가 되어버린 현실 속에서 학생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운동', '제자의 삶', '부르심과 은사'는 자신과 상관없거나 관심 갖기 어려운 주제가 되어버렸습니다.

두 번째로는 개인화된 일상과 사고방식입니다. '개인주의'라고 말하는 사회적 문제는 캠퍼스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자라온 삶이 개인 중심의 삶의 방식인 것과 더불어 미래에 대한 불안과 압박감은 더 개인의 삶에만 집중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인화된 학생들의 모습을 보며 어떤 한 간사님은 "공적감각의 상실과 더불어 사적감각이 이전보다 더 예민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학생들은 개인의 문제에는 깊은 관심과 예민한 반응을 보이면서 공동체 혹은 공적영역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거나 관심 갖는 것이 익숙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그들에게 '공동체적 부르심', '헌신' 등은 부담스럽거나 불편한 주제가 되었습니다. 개인의 신앙을 위한 '열심'은 있을 수 있지만 함께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은 반응하기 어려운 요청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밖에 캠퍼스에서는 여러 변화들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긍정적인 변화들도 있지만 실제로 캠퍼스 사역에서 느끼는 어려움들 또한 현실적인 문제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윤리적인 문제와 성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무너진 기준, 무감각해진 일상, 자기성찰에 대한 부재 등을 비롯해 여러 변화들이 학생들의 삶에 큰 영향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의 영향을 받는 학생들을 보며 간사로서 먼저 고민하게 되는 것은 '대학의 현실과 그 영향을 받고 있는 학생들을 어떻게 하면 잘 이해할 수 있을까?'입니다. 기성세대의 기준과 삶의 방식을 따라 그들을 이해하는 것이 아닌, 그들이 당면한 상황들 속에서 그들의 생각과 마음을 더 듣고 이해하는 것이 필요함을 보게 됩니다. 보다 인내하여 섬김으로 학생들을 마주하는 것과 더불어 그들이 당면한 대학사회 현실을 해석하고 설명해주며, 그에 대한 바른 반응들을 안내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더불어 일방적인 전달이 아닌 그들이 고민하고 곱씹어 볼 수 있도록 질문을 주고, 그들이 답을 발견해가도록 기다리며 동행해주는 것이 캠퍼스 사역에서 일어나야 할 변화라고 생각해봅니다.

IVF 손준호간사



4-14세대를 살리기 위한 전도와 선교전략

노향모목사
(서울우리교회담임/4-14윈도우한국연합공동대표)

요즘 목회자들을 만나면 너나없이 목회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또한 한국교회 이대로 좋은가에 대한 우려의 소리를 많이 듣고 나눈다. 한국교회의 위기를 걱정하는 것이다. 수많은 목회자들이 우후죽순처럼 매년 배출되어 나오고 교회들을 개척하지만 문 닫는 교회가 연간 3천이나 4천 교회나 된다. 한국 기독교인들의 숫자가 1,200만 명이라고 자랑하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지금은 850만이니, 600만 명이니 갈수록 줄어간다는 비관적인 말들을 많이 듣게 된다.

최근 통계에 의하면 한국교회 중 60%가 주일학교를 운영하지 못할 정도로 어린이, 청소년들이 교회에 없다고 한다. 교회는 초.중.고등부도 줄어 들고, 교사를 세우기도 어렵고, 청년대학부도 점점 줄어들거나 없어져 버린 교회도 많고, 연로한 어르신들만 남아 교회를 지켜야 하는 상황이 우리를 안타깝고 답답하게 하는 현실이다. 특별히 다음세대의 사역인 교회학교의 위기는 바로 우리 자녀들의 위기요, 가정들의 위기요, 교회의 위기로 이어지고 있으며 당연히 사회문제의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때에 지난해 말 CTS교육포럼에서 "한국교회의 위기진단과 미래목회의 대안"이란 주제로 필자가 강의한 것을 요약하여 4-14으로 상징된 어린이 청소년 다음 세대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기 위한 교회들의 전도와 선교전략의 일단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 먼저 4-14세대와 주일학교가 벼랑 끝에 서게 된 원인부터 간단히 짚어본다.

① 한국과 세계적인 현상-기독교 인구의 심각한 감소 중에 4-14 세대가 있다.

② 한국교회와 주일학교 위기를 부채질하는 것은 OECD 최저 출산율에 있다.

③ 주일학교위기는 다음세대에 대한 철저한 성경적인 교회 교육의 실패에 있다.

④ 또 하나의 원인은 교회의 대 사회적인 영향력 감소로 교회에 대한 기대가 없어지고 있다.

⑤ 말세적인 사회 문화적 상황과 환경이 교회와 주일학교의 위기의 원인이다.
– 반 기독교적 비성서적 세상 공교육과 변화하는 시대적인 위협
– 급변하는 시대적상황과 변화, 타락한 문화와 미디어의 악영향이 교회와 어린이 주일학교 위기의 원인이다.
– 목회자들의 성인들에 비해 다음세대에 대한 무관심이 원인이 된다.

둘째 : 교회와 주일학교를 살리는 대안은 무엇인가?

① 모든 교회의 전도와 선교, 목회의 초점이 4/14윈도우에 집중되어야 하겠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새로운 선교 패러다임이 일어나고 있다. 바로 4/14윈도우 선교 운동이다. 지난 20년 이상 세계 선교가 10–40윈도우라는 미전도종족에 초점이 맞춰 진행되어 왔다면, 앞으로는 지역개념이 아니라 세대 개념인 4세에서 14세로 상징되는 어린이 청소년 다음세대에 한국뿐 아니라 전세계교회의 전도와 선교의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복음을 가장 잘 받아들이는 시기의 아이들에게 전 세계교회가 집중해서 전도하고 훈련시켜서 다음세대의 지도자로 키우자는 선교운동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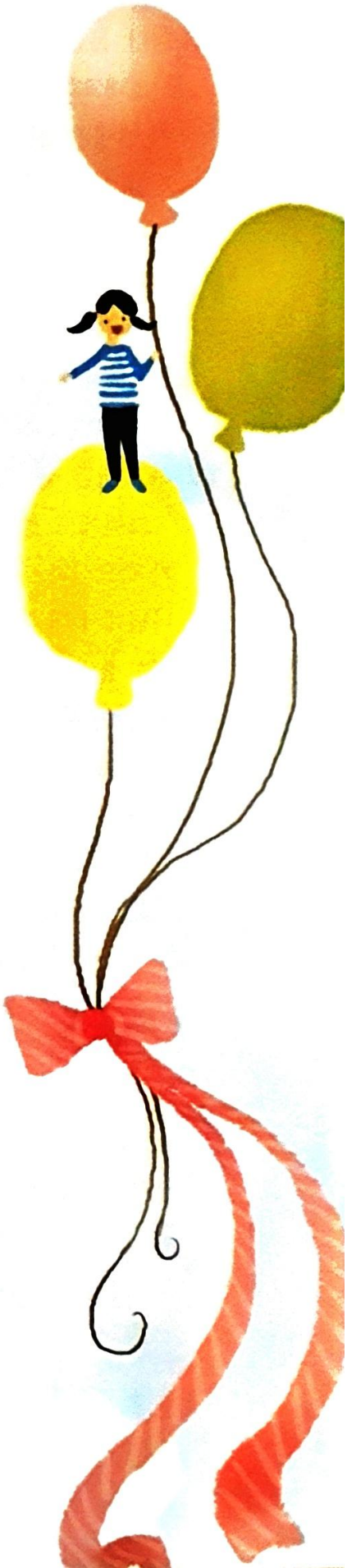
10년, 20년 후에 이 세대를 이끌어갈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다음세대는 희망이 없다. 어린이들이 변하지 않으면 다음세대 또한 변하지 않는다. 어린이는 이제 더 이상 선교의 대상만이 아니다. 어린이는 오늘과 내일의 세상을 변혁시키는 일꾼이며 선교의 주체이다. 인구학적으로 4세–14세의 어린이 청소년 연령층을 중심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새로운 세대를 일으키자는 '4/14윈도우 운동' 은 이 시대 하나님의 아젠다이다.

② 한국교회와 주일학교 위기의 대안은 모든 교회의 사역이 성경적인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다. (디모데후서 3:15~17절)

첫째, 진리의 말씀인 성경으로 어려서부터 구원의 복음을 전해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다.(15절)

둘째, 성경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교육을 철저히 해야 한다(16절)

셋째, 성경교육의 최종 목표는 1)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려서부터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하는데 있다 2)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함에 있어야 한다.



◎ 결론적인 적용점

교회와 기독교가 성경적인 본질로 돌아가야 한다. 본질로 돌아가야 교회가 산다.

초대교회처럼 어려운 시대와 환경과 상황이 언제 있었는가? 아무리 이 시대가 복음을 전하고 목회하기가 어렵다 해도 초대교회시대만 하겠는가라고 생각해 본다. 예수님과 기독교를 이단으로 몰고, 주님을 죽인 무리들인 유대교의 틈바구니에서 교회를 시작하고,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일은 지금 평양에서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하는 운동처럼 위험하고 힘든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을 전하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대 부흥과 성장과 확장을 가져다 주셨지 않은가? 그러므로 아무리 어두움이 극에 달하는 종말론적인 시대와 환경과 상황이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한 영혼을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주님의 십자가 사랑과 희생으로 구령하고, 부모가 자녀들을 양육하듯 철저히 성경의 말씀으로 어려서부터 사랑으로 양육하고, 어린이든 청소년이든 모든 평신도들이 모두 하나님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사역자로 세울 수 있다.

목회의 타겟은 이제부터 4/14윈도우여야 하고 모든 부모와 성도들은 어린이 청소년세대를 섬기는 사역에 헌신해야 한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교회가 사용할 수 있는 탁월한 컨텐츠를 잘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회가 준비해야 할 컨텐츠는 세상과 철저히 차별화 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것들이어야 한다. 사회와의 접촉점이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의 소통의 길이요, 교회 밖의 어린이 청소년들과 그들의 부모들이 교회로, 예수님께로 올 수밖에 없는 교회의 프로그램 마련이 중요하다. '교회가 학교, 학교가 교회, 교회가 가정, 가정이 교회' 인 교회개척과 교회설립으로 전략을 바꾸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부모들의 최고의 관심사는 자녀들의 교육이다. 그러므로 철저하게 준비된 컨텐츠와 교사들과 매뉴얼로 교회를 시작해야 한다. 교회개척부터 어린자녀들을 둔 부모가 관심 가질 수 있는 소수 집중의 크리스천학교로 시작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것이다.

주말학교, 주중 크리스천 스쿨, 방과 후 학교, 토요학습코칭, 주말성경학교, 주일학교 등을 살려라. 그러려면 세상을 선도하는 확실한 컨텐츠나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교회가 장학과 복지와 문화와 봉사를 가르치고 지원하고 세우는 프로그램들을 철저히 준비해야 하고 교회 재정은 상당부분이 4-14에 집중되어야 한다. 아울러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탁월한 어린이 청소년 사역의 컨텐츠는 크고 작은 교회들과 4-14 선교단체들 간에 서로 나누고 공유해야 한다.



이미 도끼가 나무뿌리에 놓였으니

박신호(예술인 선교사) | 2010 | 석판화 | 25cm X 32cm

"이미 도끼가 나무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고 심판의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심판의 대상은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입니다.
그럼 좋은 열매는 무엇일까요? 요한의 답변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좋은 나무라고 가르쳐줍니다.
좋은 나무는 첫째는 나누는 삶입니다.
둘째는 힘으로 다른 사람을 괴롭혀서는 안 됩니다.
셋째는 족한 줄 아는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합쳐보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란
말씀대로 사는 삶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좋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YN

취재 / 이관형 기자
artpam@hanmail.net



2015. 2. 15 오후 3시 "동성애를 바로 알자"

동성애, 비상식적인 일

동성애로 인한 문제가 종말을 맞고 있는 전 세계에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영국에서는 성소수자를 보호하려는 차별금지법(평등법)을 입법하는 바람에 기독교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막대한 철퇴를 맞고 있는 영상이 SNS를 통해 알려졌다. 성소수자를 보호하려는 것이 오히려 대다수 반대의견을 가진 사람들의 인권을 짓밟고 마는 결과가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면서 오늘 한국 사회에서 불어 닥치고 있는 이 문제를 교회가 지켜내지 못하면 결국은 교회의 큰 짐으로 돌아올 것이 뻔하고,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큰 장애가 될 것이기에 정신을 차리고 복음을 지키기 위한 순교의 정신으로 서 있어야 한다는 경고의 나팔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본 내용은 2월 15일 오후3시 온누리교회(김창환목사)에서 열린 "동성애를 바로알자!" 강사였던 김기현전문강사의 기고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최근 에이즈 감염자가 만명을 넘어서면서 에이즈 위험 국가가 되어버린 대한민국의 현실을 살펴보고 에이즈를 유발하는 위험행동이 무엇인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만성질환의 경우 대부분의 특정 위험 행동과 높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

예를 들어 폐암환자의 경우, 전체 폐암 환자 중 직접 흡연 흡연자가 74%를 차지하는 높은 유관성을 보입니다. 즉 흡연이라고 하는 위험행동이 폐암 유발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으로 꼽힌다는 표현입니다. 이렇게 특정행동과 유관성이 높은 질병은 예방 방법도 확고해집니다. 그래서 각종 담배 포장에는 흡연이 유발하는 질환과, 담배의 발암 물질 등을 표기하도록 국민건강증진법 등을 통하여 정하는 등의 노력이 상식적인 것으로 통합니다.

마찬가지로 에이즈 역시 특정 위험행동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해당 위험행동을 교과서나 고등학교 보건소 교육등을 통해 1999년까지는 활발하게 교육을 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2012년을 기점으로 국내 에이즈 환자 수는 밝혀진 수 만해도 일만 명이 넘어섰고 건국 이래 유래가 없는 급격한 에이즈 환자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특히 한국 청소년 에이즈감염자가 급증하여, 10년 동안에 10배 증가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전 영국의 '남성과 성관계를 가지는 남성간의 에이즈의 재유행.' 이라는 보고서에서 잉글랜드 공공보건국 케빈펜튼 교수는 '남성 동성애자들의 에이즈 감염은 전 세계적인 현상이다' 라고 공식 발표를 하여 이슈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짚고 가야 할 것은 통계에 의해 볼 때 흡연자가 폐암에 걸릴 확률이 높다고 말하는 것이 인권침해 발언이 아닌 것처럼, 남성동성애자들이 에이즈에 걸릴 확률이 높다고 말하는 것 역시 인권침해 발언이 아니라 보건 통계의 발표를 인용한 평이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한겨레등 유력 일간지의 신문 기사와 각종 보고서를 통해, 한 명의 에이즈 환자당 에이즈 치료비가 한 달에 300만원에서 많게는 500만원까지 육박한다는 사실이 이제 공공연하게 알려지고 있고 이에 대한 관심 또한 늘어나고 있습니다. 에이즈 환자분들의 삶은 상상이상으로 힘듭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한 달에 300~500만원정도 하는 에이즈 환자의 치료비를 개인이 지불하지 않아도 되게끔 100% 나라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정도로 잘

조성된 에이즈환자 케어시스템을 가진 나라는 OECD국가에서 드뭅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90프로, 질병관리본부에서 5%, 그리고 지자체에서 5% 정도 지원되어 100% 약값과 진료비를 국민의 세금, 즉 국가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는 셈입니다. 미국과 한국등 세계질병관리본부는 에이즈는 현재까지도 완치시킬 의약품이 개발되지 못했으며, 백신도 발견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미국질병관리본부에는 에이즈를 유발하는 특정 위험행동이 무엇인지 매우 자세히 반복적으로 기술되어져 있는데요. 미국의 전달 범주별 에이즈 발병률을 보게 되면 'MSM' 즉 남성 동성애자가 1980년대부터 2009년까지 30년에 걸쳐 전체 에이즈 환자 중 69.5% 즉 70% 가깝게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

MSM은 men sho have sex with men의 약자입니다. 즉 남성간 항문성교자라고 보건적으로 동성애자를 지칭하는 것인데요, 흔히 게이, 호모, 이반이라고 하는 명칭보다는 의학적으로는 동성애의 행위상의 보건적 의미인 MSM이라고 표기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신규로 에이즈 바이러스 즉 HIV에 감염된 환자들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집단을 분류하여 그래프로 나타냈는데, HIV 즉 에이즈 바이러스의 감염자중 1위가 백인 남성 MSM, 2위가 흑인 MSM, 3위가 히스페닉 MSM순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미국 전체 인구 중 1~2% 밖에 되지 않는 남성 동성애자가 전체 미국 에이즈 바이러스 감염자중에서는 무려 69.5%를 차지한다는 것은, 정상인들 보다 남성 동성애자들이 훨씬 많이 에이즈에 걸린다는 것을 뜻한다 라고 공식 홈피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미국은 또한 2011년도 미국에서 에이즈 바이러스에 걸린 약 9000명의 청소년과 청년들을 조사한 결과, 그 중 94% 이상이 동성간의 성접촉으로 에이즈에 걸렸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표를 자세히 살펴보면 13세에서 24세 에이즈 바이러스 감염자중 약 94.25%에 해당하는 청소년과 청년들이 바로 동성애 때문에 에이즈에 걸렸다고 응답을 한 것입니다. 이 충격적인 보고는 현재 에이즈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강연내용으로 많이 인용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에이즈 바이러스 감염자의 92%가 남성입니다. 여성은 8% 혹은 그 미만 일 때가 대부분입니다.

영국 공공보건국 역시 에이즈감염인 중 남성 동성애자가 가장 많고 매독 임질 인유두종 등 각종 성병, 감염질환에서 상당히 높은 발병률을 보이는 집단 역시 남성 동성애자로 발표하였습니다. 태국의 HIV재단은 태국내 남성 동성애자중 31%가 이미 에이즈 바이러스에 걸려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 존스 홉킨스는 미국, 말레이시아의 남성 동성애자의 15%가 에이즈 바이러스에 이미 걸려있다고 보고하였습니다. 한국 국립보건원은 한국 남성동성애자의 5.5%가 에이즈 감염인이라고 발표한바 있습니다.

더 큰 우려는 콘돔 사용 교육으로도 에이즈를 효과적으로 기대한 만큼 막아낼 수 없었다는 존스 홉킨스의 발표가 있은 다음부터입니다. 태국에서는 콘돔 하나로는 세 개 이상 겹쳐 써야 그나마 효과가 있다는 내용까지 발표가 되었습니다.

1993년도 해머가 동성애는 유전자 xq28에 의한 것이라는 논문이 잘못된 것임을 1999년도 라이스의 논문과 ,2005년도, 2010년도 논문 등에 의해 밝혀져서 동성애 유전자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현재 밝혀졌습니다.. 또한 설혹 폐암, 유방암, 당뇨처럼 유전자가 발견된 질환의 경우 해당 유전자가 있다고 해서 이 질병들을 더 이상 치료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2013년 11월 30일 조선일보에는 국내 유일한 에이즈 환자 요양병원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그 기사에는 "동성애를 하다 에이즈에 걸린 남성들 상당수가 항문이 파열돼 그곳에서 자주 출혈을 한다. 하루에도 몇 차례씩 환자복을 갈아 입는다 '라는 내용이 실려 있고, 그 환자의 엉덩이 부분이 붉게 피로 물들어 있는 사진이 조선일보의 인터넷 뉴스에도 실려 있습니다.

배설물 즉 대변에서 유래하는 세균이 사람의 손이나 손이 자주 닿는 곳 등을 통해 입으로 들어가게 되어 걸리는 질명이나 오염을 피칼 오랄 컨타미네이션이라고 합니다. 장티푸스 이질 콜레라 A형,B형,E형 간염, 노로바이러스, 로타바이러스, 각종 장염, 아폴로 눈병, 세균성 설사 등등이 그 속에 포함됩니다. 각종 세균과 더러운 이물질로 가득한 대변이 나오는 곳에 신체의 일부를 넣는다면 그로 말미암아 각종 질환이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담배나 음주 비만을 건강상 위험행동으로 보고 우리가 염려하듯이 동성연애 행위를 위험행동으로 보고 염려하는 것은 상식적인 일입니다.

콧구멍으로도 우유를 마실 순 있지만 그 과정에서 사래에 들거나 기도로 잘못 유입되어 폐렴이 걸릴 수도 있으므로 그런 행동을 하지 말라고 말할 수 있듯이, 대변으로 오염된 배설기관 성관계 하지 말라는 조언은 지극히 상대방의 건강을 위한 보건적인 조언입니다. 남성 여성간의 상식적이고도 정상정인 성관계를 가지는 것이 보건적으로도 건강을 위한 좋은 습관입니다. 우리나라 질병관리본부의 데이터를 기준으로 남성동성연애자들은 일반인보다 183배 더 에이즈바이러스에 걸린다는 내용 역시 많은 분들이 기사와 각종 광고나 보고서 등을 통해 이미 알고 계신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막연하게 알기보다 특별히 전 세계 보건 당국의 통계를 통해 좀더 객관적이고 효율적으로 건강관리를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글 / 김기현

춘천성시합창단 제9회 정기연주회 특별기획공연

"THE CROSS(더크로스)"



Seven words from the Cross (架上七言)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골고다 십자가 위에서 남긴 고통의 말씀을 성시합창단이 눈물로 함께 부르고자 합니다.

–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눅23:34)

–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눅23:43)

–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네 어머니라"(요19:26–27)

–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마27:46; 막15:34)

– "내가 목마르다"(요19:28)

– "다 이루었다"(요19:30)

–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눅23:46)

외롭게 외치신 이 말씀들을 큰소리로 땅 끝까지 들리도록 우리의 몸짓과 소리를 통해 노래로 전합니다.

"더 크로스" 곡 설명

서곡 일생을 슬픔 속에 보낸 나오미의 탄식이 들려온다. 고향 베들레헴의 흉년을 피해 모압으로 이민 갔으나 거기서 뜻밖에도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시어머니 나오미는 큰 며느리 룻을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온다. 이때 친족들이 환영하며 '나오미(희락)'를 부르자 나오미가 자신의 괴로움을 인하여 '마라(괴로움)'라 부르라고 한다.

1막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서른 세 살의 청년 예수. 스스로 '유대인의 왕이요, 하나님의 아들' 이라 하여 신성모독죄로 로마법에 따라 십자가형에 처하는 최고형이 구형됐다.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은 모두 배신하여 흩어지고 로마 총독 빌라도는 도무지 죄를 찾지 못했지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유대인들의 반란이 두려워 그를 채찍질하고 가시면류관을 씌우며 고문한 후, 결국 십자가형을 받도록 내어준다. 하늘은 점점 더 어두워지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유대인들의 외침만 높아지고, 차고 날카로운 바람 사이로 음산한 기운이 침체해 있다.

2막 잔인한 로마의 가장 지독한 벌은 죄인의 손과 발을 십자가에 못 박아 매달아 죽이는 가장 끔찍한 벌이었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날 두 명의 죄인도 십자가형을 받았다. 한

편 강도가 죽음 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예수의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아무 흠없고 아무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무에 달려서 저주를 받고 있는 이유는 바로 자기 같은 죄인을 대신해서 받을 저주를 받는 것임을 깨닫는다.

3막 십자가 아래에는 어머니 마리아와 이모와 제자 한 명이 있었다. 어머니 마리아는 아들의 손바닥에 못이 박히는 모습을 보다가 그 자리에 쓰러진다. 괴롭고 고통스러운 아들과 어머니의 눈이 마주쳤을 때 아들은 마지막 힘을 다해 자기 제자에게 어머니를 부탁한다. 가엾은 어머니의 조용한 통곡, 고통은 점점 더해지고, 빛은 점점 더 약해진다.

4막 한낮이 되자 눈부시게 빛나던 태양이 갑자기 자취를 감춘다. 한밤중처럼 앞을 분간할 수 없는 어둠이 한참 동안 계속되었다. 예수의 고통스러운 비명과 탄식 소리가 가슴 아프다. 나의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5막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향해 백성들과 관원들이 비웃는다. 군병들도 희롱하고 십자가에 못 박힌 한 강도도 조롱한다. 지금이라도 이적을 일으켜서 십자가에서 내려온다면 그 말을 믿겠노라고 지나가던 자들이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고침을 뱉고 눈을 부라리며 저주를 퍼부었다. 다른 사람에게는 죄 사함 받으라고 말하더니 자기 죄는 구원치 못해서 십자가에 달렸다고 조롱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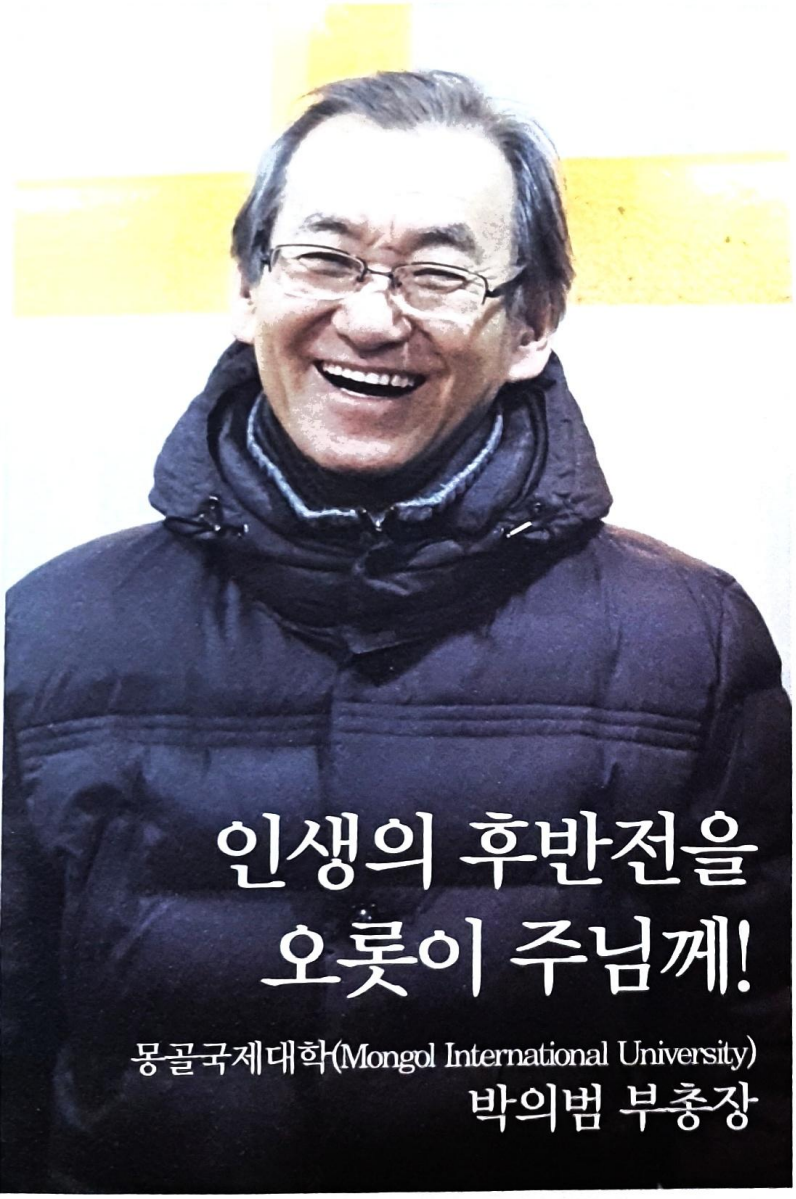
6막 예수는 이 모든 일이 다 예정된 대로 진행되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 자기를 보낸 아버지의 계획대로 되고 있음을. 모든 것을 받아들이며 아버지를 향해 조용히 되뇐다. 아버지여 나를 받아 주소서.

7막 목마르다는 신음 소리를 들은 로마 병사가 막대기 끝에 포도주를 적셔 입술에 대 주자 청년 예수는 '다 이루었다.' 하며 숨을 거둔다. 그 시간 성전의 커튼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길게 찢어지고, 주변에 큰 지진이 일어나 무덤을 막고 있던 돌들이 열리고 여러 족장들이 다시 살아난다. 사람들은 이상한 현상을 보고 예수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을까 하며 두려워한다. 날이 어두워지고 금요일 밤은 쓸쓸한 눈물 속에 저물어 갔다.

윤창호 교수의 지휘로 경북 예천군 기독합창단인 "예사랑합창단"이 함께 참여한 100여 명의 합창단과 성악가(소프라노, 메조소프라노, 테너, 바리톤)의 협연으로 공연합니다. 성시챔버오케스트라(피아노: 박실)의 반주로 성가극의 감동이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천국의 소망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춘천성시합창단이 기독합창문화의 든든한 토대가 되고 품격 있는 문화공연의 주체가 되어, 성시도시 춘천을 꿈꾸며 춘천 기독인의 연합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글 / 이기영 (성시합창단 단무장)

"THE CROSS"
2015. 3.28(토) 오후 7시
춘천문화예술회관



인생의 후반전을 오롯이 주님께!

몽골국제대학(Mongol International University) 박의범 부총장

2015년 2월 17일 통일한마당 기도모임에서는, 겨울방학을 맞아 한국에 다니러 오신 몽골국제대학 박의범 부총장님의 메시지가 있었다.

박의범 교수님은 강원대학교 무역학과 교수로 30여년 봉직하시다가 2012년 정년퇴직하시고 바로 몽골국제대학 부총장으로 부임하셨다.

몽골국제대학은 2002년 9월 원동연 박사 등, 한국선교사들이 설립한 대학으로서 몽골의 차세대 리더를 양성하고 재교육시킬 뿐만 아니라, 한때 세계를 지배했던 몽골제국의 영적 부르심에 부응하여 중앙아시아, 아프가니스탄, 시베리아 등지에 흩어져있는 110개의 미전도종족을 대상으로 그들 가운데서 유학생을 받아 함께 공부하며 복음을 전하는 비전으로 세워진 대학이다.

2002년 개교 당시에는 3개학과 66명의 학생으로 시작하였지만, 지금은 7개학과 750명의 학생으로 발전하였으며, 30%가 10개국에서 온 외국인 유학생들이다.

10%는 한국학생, 10%는 러시아학생, 나머지 10%는 아프간, 중국, 심지어는 나이지리아에서 온 학생들도 있다. 교수들은 60%가 박사학위 소지자들로서 미국, 영국을 비롯하여 11개국에서 온 선교사들이며 최근에는 기독교적 세계관을 견지하고 있는 휘튼대학에서 교수가 오셨다고 한다. 매일 6시간씩 영어로 수업을 하는데, 1,2학년때는 영어 때문에 탈락율이 40%에 달하지만, 그들도 영어 클라스를 다시 수강하고 들어와서 3,4학년이 되면 영어를 아주 잘 하게 된다고 한다. 학비는 한국의 반밖에 안 들고 박사학위를 가진 영미 교수들이 가르치므로 굳이 비싼 영어권 나라에 가지 않아도 되는 이점, 그리고 선교비전이 있는 학생들을 매년 주변의 중국이나 러시아의 미전도종족에게 미션트립을 보내고 있으며 10여 개국 학생들이 함께 기숙사 생활하며 익히는 타문화적응 등, 선교를 준비하는 한국 청년들에게 너무나 좋은 학교라고 하신다. 최근에는 한국의 한남대, 미국 미조리 행정대학원, 충남대 국가행정대학원 등과 MOU를 체결하여 교환학생, 학위 공동수여도 이루어진다고 하신다.

Educating Tomorrow 's Global Leader 가 이 학교의 캐치 프레이즈로서 교수 한 사람이 열 명의 학생들을 케어하는 제도가 있어서 교수가 개별적으로 학생을 상담하고 교수 집에서 성경공부와 제자양육을 하고 있다 한다.

박의범 장로님은 고향이 황해도 황주로서 일사후퇴 때 부모님을 따라 피난을 오셨다고 한다. 기차 지붕 꼭대기까지 빼곡히 피난민들이 탔을 뿐 아니라 굴을 지날 때면 떨어져 죽는 사람들도 있었고 예고 없이 정차했다가 또 예고도 없이 다시 출발하면 잠시 물이나 음식을 구하러 갔던 가족들과 생이별하는 일도 많이 있었다며 영화 '국제시장'의 상황들을 고스란히 겪고 보셨다 한다.

대구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며 교회를 다니게 되었고 대학교 2학년 때 IVF 수련회에 참석했다가 조동진 박사님의 선교도전을 받고 일어나 헌신하셨었다 한다. 2002년 방학 때 국제경영학 집중강의를 위해 몽골국제대학에 간 것이 계기가 되어 그 후 매년 여름방학에는 몽골에 가서 집중강의를 하고 오셨다. 강원대학에도 많은 몽골 유학생들이 오게 되면서 박교수님도 12명의 몽골학생들을 석박사 졸업시키셨는데 이들은 모두 박교수님이 장로로 시무하시는 동부장로교회에서 세례를 받았고 지금은 몽골에서 지도층으로 활약하고 있다.

아시아, 아프리카 등지에 한국 선교사들이 세운 대학교가 16개에 달하는데, 이들 대학들은 PAUA(Pacific Asia University Association) 라는 연합체를 만들어 정보와 인재 풀을 공유하며 협력하고 있다 한다. 우리나라도 빠른 속



도로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면서 행복하고 건강하며 보람있는 '시니어 라이프' 에로의 안내가 절실한 시대가 되었다. 영어로 강의할 수 있는 분들이 1년 혹은 2년간 자신의 전문지식과 복음을 가지고 이런 대학들에 헌신한다면 참으로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

얼마 전에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KOICA (한국국제협력단) 중 · 장기자문단의 일원으로 페루와 르완다에 1년간 다녀와서 인터뷰한 기사가 있었다. '지식공유사업' 즉, 우리나라가 단기간 이룩한 경제발전 경험을 개발도상국에 전수하는 것인데, 이처럼 인재를 보내어 지식과 경험을 원조하는 일에 우리 크리스찬들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은퇴 전에 미리 준비하면 좋을 것 같다. 중국은 경제적 이익 때문에 벌써부터 아프리카, 중남미 등 자원강국에 진출하여 선점하고 있는데, 하물며 영원한 생명의 복음을 가진 우리 크리스찬들이 지혜와 전략을 가지고 인생의 후반전을 오롯이 주님 나라에 헌신하는 이러한 일에 뒤처진다면 안타까운 일이 될 것이다.

글 / 기정희선교사
신경정신과 전문의, 춘천의료원 신경정신과장 및 진료부장 역임

"한국교회가 가져야 할 통일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준 것이니라"(렘 29:11) 우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도 오늘의 현재를 만들기 위해 계획하시고 예언하신 것이다.

종교역사를 보면 대동강변의 토마스선교사가 박춘권에게 목베임을 당했고, 최치량은 성경을 받아 집을 도배했는데, 그 곳이 널다리교회가 되고 장대현 교회가 되어 평양대부흥의 근거지가 되었다. 1866년에는 실패한 사역 같았으나 150년만에 세계선교사역을 감당하는 나라가 되었다. 그후 1907년 강력한 성령의 역사로 평양대부흥이 있었으나, 1910년 나라가 망하고 흩어지게 되어 만주, 간도로 3000만이 이동하였고, 현재 남북한 7천500만중 750만 디아스포라가 있다.

경제역사를 보면 단군이래 현재가 제일 잘 사는 시대로 분단과 디아스포라의 우리 민족이 아픔 슬픔을 극복해서 현재에 이르렀다. 175개국 디아스포라는 3가정이면 교회를 세웠고, 결국 우리나라는 세계 선교2위 국가로 세워졌다. 평양대부흥 100주년인 2007년에 "Again 1907" 집회가 있을 당시 전 세계가 기억하는 아프가니스탄 2명의 순교자가 있었다. 토마스선교사를 파송한 교회가 있는 웨일즈("샘"이란 뜻), 2명의 선교사는 샘물교회 출신이었는데 무언가 의미를 지니고 있는 듯하다. 남쪽은 세계의 어느 나라보다 잘 사는 민족이고, 북쪽은 세계의 황폐한 나라 중 하나이다.

제국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살펴보면, 예수님 당시 로마를 통해 유럽 복음화가 일으켜졌고, 대영제국인 영국은 산업혁명으로 과학기술발전을 힘입어 200년간 식민지를 만들며 복음이 전파되었고, 미국은 100년간 전 세계에 복음을 전했고 우리나라까지 전파되었다.

선교지역을 나누어 보면, 공개지역(대표적인 곳, 한국)과 비공개지역(북한, 중국, 중동, 이스라엘, 북아프리카등)인데, 공개지역 영성은 빛의 영성으로 의료와 교육을 중심으로 선교가 되었고, 비공개지역 영성은 소금의 영성으로 짠맛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간다. 그래서 서로 만나면 오해와 편견을 갖게 될 수 있다.

비공개지역인 중국교회의 영성을 살펴보면, 모택동 정권 때 문화혁명 당시 15~16세의 홍의병을 일으켜 비판세력을 만들어 기독교를

핍박하여서 기독교의 씨가 마를 것으로 생각했으나, 문화혁명 후 30만이던 기독교인이 현재 1억 2천이라는 통계가 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남겨진 칠천이 있었듯이 문화혁명 당시 무수한 크리스천이 있었다는 말이 된다. 즉 중국은 비공개 영성을 가지고 있다. 앞으로 남은 선교는 비공개 국가들이다. 그 중 비공개 지역 1등 국가는 북한이다.

그렇다면 한국교회가 가져야 할 통일론은 무엇인가? 우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마음을 알아야 한다. 모르면 부분적인 것으로 전체를 설명을 하게 된다. 우리가 생각할 때 북한은 복음을 받아야 할 곳으로 생각하나, 북한에는 오직 예수만이 주는 자유를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하고 순전한 하나님의 교회가 있다. 하나님은 왜 북한에 이런 교회를 숨겨 놓으셨을까?

아합시대의 오바댜,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 아람장군 나아만, 다니엘과 세 친구는 비공개 지역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보석같이 신앙을 지킨 사람들이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나온 믿음이기에 기준이 어려울 수 있다. 그러므로 비공개지역의 영성에 대해서는 우리 생각의 한계 속에 넣지 말아야 한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환난, 핍박이 올 텐데 그럼에도 복음을 전파하며 대 추수의 역사를 일으킬 가장 순전한 교회로서의 노하우는 북한교회가 그 답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분단이 우리는 재앙이라고 생각했으나, 공개적으로 강한 남한교회와, 비공개적으로 강한 북한교회는 절망이 아니라 소망이다. 스가랴서 말씀처럼 남유다는 활, 북에브라임은 화살(사49장 마광한 화살, 갈리고 갈리어 하나님의 시간을 위해 전통 속에 숨겨진) 그래서 활과 화살이 하나가 되어 쏠 수 있으면 주님 오실 길의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다. 문제는 내 활에 화살을 놓아줄 마음이 있는가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쓰시겠다면 활을 내어 드리는 온전한 순종이 있어야 한다. 마광한 화살과 같은 북한의 믿음의 형제들 앞에 우리는 진정한 활이 될 수 있겠는가?

북한교회에는 핍박이 있으나 남한교회에는 미혹이 있다. 북한교회는 렘2장의 말씀처럼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린 것과 터진 웅덩이를 판 죄악을 범했고, 남한교회는 렘3장의 말씀처럼 믿음의 대상을 바꾼 배역한 이스라엘과 같고, 믿기는 믿는데 거짓으로 믿는 패역한 유다와 같다. 진정하게 회개하며 순전치 못한 허물을 찾아 돌이켜야 한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내 이성을 뛰어넘는 순종을 할 때, 욥바의 베드로에게 부정한 짐승을 잡아먹으라 하심처럼, 자신의 틀을 벗어버리고, 부자청년에게 요구하시는 것처럼, 내게 소중한 것을 내어 놓을 때, 오직 힘과 능력이 아닌 여호와의 신으로 우리에게 열릴 시대를 감당하게 하실 것이다.

주향교회(이병철목사)에서 열린 2015 신년 집회 중 연변과학기술대학교 김한수교수의 강의를 요약하여 게재합니다.

글 / 이은정 기자
graceyh02@hanmail.net



거짓 사회에서의 그리스도인

봄이 다시 오고 있다. 어느 새 3월이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주 만물의 운행은 언제나 거짓 없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해마다 새로운 기쁨을 준다. 이제 곧 우리 세상엔 꽃들이 새로 피어나고 여기저기에서 새들도 아름답게 지저귈 것이다.

이렇게 새 봄이 오는 올해의 이 길목에 내 마음은 크게 기쁘지를 못하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너무나 오랜 세월 사람답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온 현실이 너무나 가슴 아픈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참으로 존귀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까지 나누어 주셨지만, 그 사는 모습은 거짓과 부정부패와 싸움으로 하루도 바람 잘 날이 없는 것이다.

특히 우리의 국민들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어야 할 수많은 국가 지도자들의 모습은 나를 더욱 슬프게 한다. 최근 우리 국회에서 새로운 국무총리를 인준하는 청문회의 그 모습은 어떠했는가?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그 지도자는 어떠했으며, 그 후보자의 과거를 갈기갈기 파헤치며 어떻게 하든 상대 당을 훼손시키고자 하는 야당 의원들은 또 어떠했는가?

해방 후 우리의 현대사는 너무나 처절한 거짓과 부정부패의 진흙탕이었다. 1948년 7월 17일 공표된 제헌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조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헌법이 제정되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 70년에 이른 지금까지, 이 제1조와 제2조의 규정은 얼마나 존중되고, 얼마나 충실한 국가 통치의 대원칙 역할을 해왔는가?

제헌 헌법 제1조와 제2조는 대한민국 정체성과 삶의 질서를 규정하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역사적 약속의 하나였다. 이것은 국가의 모든 통치 주체들이 국민을 주인으로 삼으면서 오직 국민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 헌신적으로 이바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정당사의 최초 여당이었던 자유당은, 건국 초기부터 이 헌법 정신을 무시했다. 1960년 3월 15일에 있었던 대통령 선거를 부정으로 끌고 간 것이다.

이것은 학생들로 하여금 4.19 혁명을 촉발시키는 요인이 되었지만, 그 후 우리 정치는 계

속 이 최초의 중대한 헌법 정신을 회복하지 못했다. 불행하게도 우리의 국가 지도자들은 권력과 부정부패의 끈질긴 유혹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우리 국가 현실을 돌이킬 수 없는 거짓 사회로 만들어 버린 것이다. 해방 후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국가 여러 영역의 지도자들이 저지른 거짓과 부정부패는 결국 민주공화국으로서의 대한민국을 한시도 조용할 날이 없는 이권다툼의 싸움터로 만들어 버렸다. 그리고 이러한 현실을 깨닫고 바로잡으려는 진실한 노력은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았다.

그리하여 이번에 새롭게 국무총리로 지명된 정치인도 그 타성에 의해 스스로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알아차리지 못하는 모순에 빠지게 되었고, 국회에서 청문회를 주도한 모든 야당 의원들도 안중에 권력욕만 있을 뿐, 국민은 보이지 않았다. 이런 면에서 정치인이 아닌 학자로서의 나 자신을 돌이켜 보아도, 그동안 우리가 빠져 살던 그 거짓과 부정부패의 진흙탕 속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관행이라는 이름의 변명이 우리 눈을 가리어 거짓을 거짓으로 판단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우리 현실을 하나님께서 보시면 어떤 마음이실까? 참으로 보시기에 좋은 세상이라고 감탄하실까? 그러나 결코 그럴 수 없는 것이 우리 모습이다. 우리 현실은 하나님 진리와는 거리가 먼 동물적 본능 속의 물욕, 권력욕에 사로잡혀 진리를 알아차릴 이성적 틈새를 모두 상실하고 있는 것이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을 다시 생각해 본다. 우리는 이제 자각적으로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변화시키는 회개와 거듭남의 새로운 깨달음을 통해 우리 현실을 진실과 정의의 새로운 무대로 변화시켜야 되는 것이다. 이런 면에서 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이 새삼 절실함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거짓을 중요한 자기 생존 수단의 하나로 삼는 무의식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이 본능적 무의식으로 살면 우리 인간은 짐승보다 못한 추악 속에 빠지게 된다. 인류 한계가 바로 이것이다. 거짓과 부정부패는 공동체의 안정된 사회 질서를 해치는 악의 축으로서, 인간으로서의 인간다움을 파괴하는 요인이 여기에 있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전한 모든 복음은 바로 악에 빠진 인류 구원의 희망이 담긴 하나님의 진리 메시지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솔선하여 이 복음을 바로 알고 실천한다면 이 세상은 어느 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화목과 사랑과 평화의 새로운 꿈의 에덴이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희망이시고 우리 인류의 소망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진리 말씀 안에서 이 세상을 진실 사회로 바꾸는 사명감을 이성적으로 자각하고 실천하는 데 앞장 서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거짓은 순간의 이익을 위해 영원한 이익을 파괴하는 독약이다.

글 / 박민수 교수
순복음춘천교회 장로, 박민수뇌경영연구소 소장

대안교육 현장의 특별한 이야기

BH 춘천국제학교 "힐링 글쓰기 캠프"



아침 해가 가장 먼저 닿을 것 같은 작은 동산위에 Blessed Hope Chuncheon International School(사단법인 베드로선교센터 내)가 있다. 춘천의 성시화와 세계복음화를 위한 글로벌 리더들을 배출하기 위해 세워진 이 학교에는 특별한 이야기가 있다.

학기 중에는 SOT(School Of Tomorrow)의 주 교재인 PACE를 풀며 쉴 새 없이 글로벌리더가 되기 위해 공부한다. 또한 방학에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설한다. 이를 통해 학생들에게 심도 있는 배움의 기회와 다양한 체험학습을 제공한다. 이 프로그램은 지역 사회와 나누고, 더 나아가 해외 교육선교지에 캠프를 개최하고자 한다.

이번 겨울 캠프에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에서 아름다운 스토리에 빠져든다.' 라는 주제 아래 '힐링 글쓰기 캠프'를 진행하였다. BH춘천국제학교에서 매주 1회 진행하는 '스토리텔링' 수업(독서수업)과 연결하여 청소년 단편 소설을 완성하자는 작은 목표 아래, 공동체 훈련과 기독교적 세계관을 형성하기 위한 영성 프로그램이 함께 진행되었다.

산천 무지개 교회(담임목사: 윤재선)의 신축 교육관에서 9박 10일 캠프가 시작되었다. BH 춘천국제학교는 현재 보딩 스쿨(기숙학교)가 아니기에, 공동체 훈련이 필요했다. 이번 캠프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학교 내에 질서와 권위를 세워 가시기를 원했고,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진정한 안정감을 누릴 수 있음을 선포하셨다.(사43:2) 이를 통해 아이들은 젖어있는 중



독된 습관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 안에서 건강한 자존감과 가치관을 세울 수 있게 되었다.

추운 겨울바람도 멈추게 하지 못했던 지난 9박 10일. 새벽닭이 5시면 울어대는 청정한 시골 마을에서 어둠을 깨고 일어나 스트레칭으로 하루를 시작하였다. 임마누엘 치유의 동산에 붉은 해가 비추기 시작하면 아이들은 조별 '큐티'를 하고 '시'를 썼다. 마지막 날 발표회의 시화전은 보는 이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기 충분했다.

유리를 통해 들어오는 햇살이 아이들의 몸과 마음을 포근하게 해주기 시작하면 아이들은 노트북을 꺼내어 1년 동안 준비한 소설 쓰기를 진행하였다. 타이핑 소리만이 가득한 현장 속에서 아이들이 치열하게 만나고 있는 자신과의 '대면',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세상과의 '대결'이 기대가 되기도 하였다.

소설이란 그런 것이다. 상상과 거짓이라고 치부할 수는 없다. 곧 내가 주인공이며, 주인공의 삶을 창조하는 가운데에서 내 삶에 있는 불투명한 것들이 투명해지고, 깨끗해져 나를 치유하는 문학이다. 아이들의 문장이 서툴고 내용이 황당하더라도, 상관없다. 외부적인 자극에 익숙한 아이들이 내면에서 끊임없이 무언가를 생각해내려는 노력에 큰 의미가 있는 것이다.

또한 캠프에는 매일 전문 강사들이 방문하여 특강을 들려주었다. 매일 오후 2시부터 약 100분간 진행되었다. KBS 이영일 기자를 통해 듣는 사건이야기, 심재연, 노성호 교수님이 말씀과 함께 풀어주신 고고학과 역사이야기, 네이버 웹툰을 연재하는 손태규 작가와 전문 삽화 작가 박은경 선생님을 통해 듣는 그림이야기, 베스트셀러 〈생명수의 강〉의 저자인 김용덕 목사를 통해 듣는 책이야기, 독서학습코치 황진문 목사를 통해 아이들은 비전을 세우고 학습의 습관들을 배울 수 있었다.

매일 저녁에는 집회가 있었다. 뜨거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원배 목사, 김용덕 목사, 강수인 목사, 최승희 사모, 김숭희 교수를 통해 비전 설교를 듣고 기도회를 가졌





다. 놀라운 은사들이 나타나는 성령 충만한 시간이었다.

잊을 수 없는 것 중 하나는 새벽까지 불을 밝히며 아이들과 함께 글을 쓴 시간이었다. 우리가 우려하고 질책하는 청소년들의 나약한 모습은 전혀 없고 열정으로 가득한 현장이었다. 아이들은 이야기 안에서 아픔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주인공인 자신을 만나게 되었다. 교사들도 아이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게 되니 한 뼘 더 성장할 수 있게 되었다. 그렇게 아이들은 첫 단편 소설을 완성하였다. 참 멋진 일이 아닌가.

산천 무지개 교회의 동산에서 내려가는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축복된 씨앗들이 깊고 넓게 뿌리가 내려 그 어떤 시련 속에서도 견디는 멋진 나무들로 자라길 소원했다.

모처럼 만에 느껴지는 따뜻한 햇살, 겨울 속에 살포시 감춰진 작은 봄을 느끼며 BH춘천국제학교의 새 봄을 기대하게 된다.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생각하며 지어지는 미소 가운데 BH춘천국제학교에 희망을 바라본다.

글/ BH-OS 독서캠프 담당교사 김보람

BH춘천국제학교 후원안내

BHCIS는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운데 아이들을 지키라는
소명을 받은 비인가 학교입니다.
모든 영혼을 품을 수 있는 두 팔이 넓은 학교,
하나님의 글로벌 리더를 키우기 위한 최고의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학교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신한 은행 110-356-468732 권미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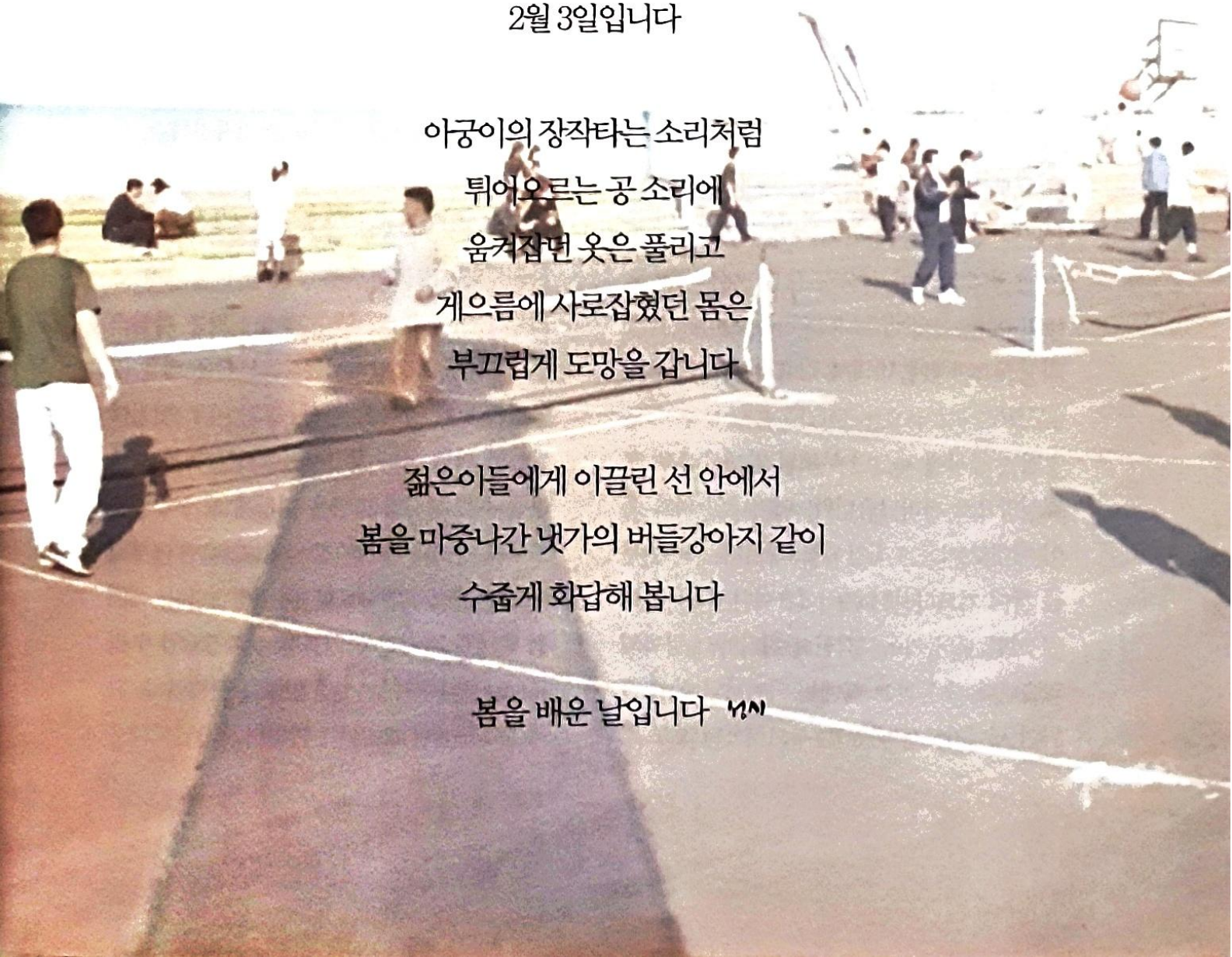
2월 3일

심인 이학천(1963-)

족구장에 끌려 나왔습니다

젊은 이들은 팔 소매를 주름잡고
주랑의 기둥처럼 종아리도 드러내고
솔로몬의 주랑에서 연설하는 베드로처럼
화이팅 소리가 힘이 있습니다

2월 3일입니다



아궁이의 장작타는 소리처럼
튀어오르는 공 소리에
움켜잡던 옷은 풀리고
게으름에 사로잡혔던 몸은
부끄럽게 도망을 갑니다

젊은이들에게 이끌린 선 안에서
봄을 마중나간 냇가의 버들강아지 같이
수줍게 화답해 봅니다

봄을 배운 날입니다 ㅎㅎ



마지막 때의 차세대 리더들을 키우다

「춘천 몬테쏘리어린이집」 (이성미 원장)

춘천시 외곽 학곡리 전원(田園)에 교실 5개의 본관, 강당 및 실내 놀이터를 갖춘 어린이들의 꿈의 궁전이 있다. 바로 「춘천 몬테쏘리어린이집」이다. 동화 속 성처럼 생겼고, 내부도 아기자기하다. 작은 천국에 온 듯 하다면 과장일까. 유아교육을 전공하고, 주 안에서 마지막 때의 차세대 리더들을 키우기 위해 온갖 열정을 쏟고 있는 이성미 원장. 그 의미 있는 이야기들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자.

이 원장님, 반갑습니다. 먼저 자라온 배경과 신앙 내력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저는 공직에 계셨던 부모님 밑에서 소위 모태신앙으로 자라났습니다. 어머니의 외가 쪽이 대대로 기독교 집안이었고, 어머니 또한 무릎 꿇어 기도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 부터 기독교적인 분위기에서 양육되었습니다. 초등학교 때에는 어머니와 함께 다니며 새벽기도를 배웠고, 부르짖으며 중보 기도하시는 어머니의 모습 속에서 저는 자연스럽게 "간구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중학교 시절, 교회 바로 뒷집에 살았던 덕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도 많았습니다. 목사님 따님을 귀찮게 해가며 배운 반주 덕에 작은 교회지만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수요예배 봉사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예배 전 준비찬송 시간에 인도하시는 장로님이 잘 모르는 찬송을 부르시면 반주를 못하여 그 자리에서 울었던 재미있는 기억도 생각납니다.



언제부터 어린이 선교에 관심을 가지게 되셨습니까?

교회 고등부 시절, 집 근처에 예쁜 어린이 선교원을 보며 '나도 선교원 원장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고 싶다'는 작은 꿈이 생겼고, 결국 대학 유아교육과에 입학하여 교사로서의 준비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공부를 위해 떠난 유학 시절, 섬기던 교회를 계속 섬기기가 힘들어 지며 교회를 정착하지 못하는 제 인생의 영적방황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저를 사랑하셔서 월드비전어린이집, YWCA 어린이집 등 기독교 재단 어린이집에서 근무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끈을 놓치지 않도록, 기도와 예배 속에서 살 수 밖에 없는 여건을 만들어주셨습니다. 지금의 「춘천 몬테쏘리어린이집」으로 이끄신 것은 전적인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더욱 감사한 것은 우리 가정의 영적 제사장인 남편이 이 무렵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현재 남편은 섬기고 있는 예광교회(담임목사 조영춘)에서 차량운행봉사자로, 중고등부 부장집사로, 남전도회 총무로 헌신하고 있는데 그 모습이 저로서는 너무나도 감동스럽습니다.



지금의 「춘천 몬테쏘리어린이집」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지요

「춘천 몬테쏘리어린이집」은 교실 5개의 본관과 강당 및 실내 놀이터의 신관으로 나뉘어져 있는 작은 꿈의 궁전입니다. 처음 들른 어린이들은 모두가 동화 속 성처럼 생겼다고 환호성을 지른답니다. 물론 지금의 어린이집 건물은 수십 년을 어린이 선교사역과 그리스도의 마을 건립을 위해 힘써 온 전임 원장 오말선 박사님의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8명의 정교사와 8개의 반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선교원의 위치가 학곡리 전원, 작은 동산 아래 위치하므로 아동들의 생태 교육의 천국입니다. 또한 지역사회복지관 등 어르신들과 연계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1-3세대





교육을 중요시하여 실행하고 있습니다. 예절교육, 국악교육 등 전통문화와 다문화 교육을 중시하고 있는데 글로벌인재 양성은 내 나라 문화를 사랑할 때 가능함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도 독서프로그램, 미술프로그램, 통합교구 프로그램등 아이들이 흥미로워하고 재밌어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하루하루가 행복하길 모든 교사들은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직원들은 매일 아침 8시 30분이 되면 예배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또한 매일 매일 드리는 아이들과의 예배 속에서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지 감동이 밀려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고사리 같은 손으로 두 손을 깍지 끼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어떤 날은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옵니다. 이렇게 마음껏 아이들과 예배할 수 있는 곳으로 저를 인도하신 것이 감사하고 각 아동들의 가정과 교직원의 가정을 위해 중보자로 설 수 있음이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원장님의 교육철학과 비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지금의 「춘천 몬테쏘리어린이집」은 2012년 가을부터 심겼으니까 벌써 햇수로 4년째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선교원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에 최선을 다할 수 있음이 감사합니다. 저의 소박한 교육철학은 한 마디로 원아들을 "성경을 의지하는 어린이, 예수님을 닮은 어린이로 자라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일 드리는 어린이 예배와 성경이야기 속에서 지혜와 인



성이 바르게 자라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공교육과정의 충실한 이행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표준보육과정과 누리교육과정을 잘 풀어내고 실행하여 아이들을 행복하고 평안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 원장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춘천 몬테쏘리어린이집! 이곳은 주님의 집입니다. 언제까지나 주님은 이곳에서 예배하게 하시며, 어린 영혼들을 통하여 하실 크신 계획을 하나씩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세계가 주목할 만한 그러한 선교원이길 기도합니다. 국제적인 선교사와 목회자가 배출되고 각자의 삶에서 주님이 증거 되는 마지막 때의 주님의 리더들이 길러지는 것이 선교원의 비전이며 기도제목입니다. 사단은 공교육을 통하여 공격하지만 주님의 집은 항상 승리할 것입니다.

저는 2015학년부터 박사과정을 새로 시작하는 열성 유아교육인입니다. 또 세 아이의 엄마이기도 합니다. 저의 자녀들을 양육하는 심정으로 올 한 해는 기도, 예배, 전도 등 이 세 가지를 더욱 성실히 주님 앞에 올려드릴 것을 결단해 봅니다.

저는 히브리서 10장의 말씀과 예레미야 33장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히10:35-39)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렘33:3) 히브리서 말씀의 담대함, 인내, 뒤로 물러가지 말고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말씀은 내 삶에 새 힘을 부어 주셨습니다. 또한 예레미야 말씀을 보는 순간 저는 뜨거운 눈물을 쏟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은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실 분이시기에 믿고 의지하고 동행하기를 항상 간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취재 / 최상도 기자
saam21@hanmail.net



"삶으로 돌아가라"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누가복음 3장 8절)

노에녹목사
한울섬김교회
CBSI-Korea 섬김이

"2014년 12월 한국 전쟁설에 대한 예언"이 한 동안 한국교회의 큰 화두가 되었습니다. 예언은 불발되었고 또 한 번의 거룩한 해프닝으로 마감되었습니다. 통일 한국과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대한 간절함 때문이었을 것이라고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개인적 환상과 예언을 성경처럼 믿고 가산을 정리해서 국내외로 피난길을 나섰다가 이제는 속았다고 고발까지 하는 사태를 보면서 이것이 과연 종말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자세일까 고민해 봅니다.

말라기 이후 선지자와 예언자들의 활동이 멈춘 침묵의 시기였던 2000전 유대 땅에도 이러한 해프닝들이 빈번했습니다. 그래서 침례요한의 등장은 스포트라이트를 받기에 충분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광야의 요한에게 몰려와 회개의 침례를 받겠다고 나섰습니다. 당시 침례는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개종할 때 시행하던 의식으로 유대인들에겐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광야로 몰려가 침례를 받겠다는 것으로 당시 변화의 욕구와 시대적 긴박성을 충분히 가늠해 볼 수 있는 현상이었습니다.

침례받겠다고 나서는 개종자(?)들에게 요한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며 소리를 높이고, 무리들은 "…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라고 행동 지침을 요구합니다. 이에 요한은 "옷 두벌 있는 사람은 옷 없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하라", 세리에게는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군인들에게는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 알라고"고 답합니다. (눅3:7-14)

요한의 메시지를 요약 해석해 보면 "나왔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수 많은 사람들은 암울한 현실을 견디지 못하고 광야, 높은 산 또는 협곡에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고 은둔적 세계를 시도하며 이것이 진정한 영성인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요한의 눈에는 이는 현실 도피적인 신앙에 불과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도피적 영성에서 돌아서서 나왔던 삶의 현장으로 다시 돌아가라고 주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고, 그들과의 깨진 관계를 회복하는 변화를 보이라고 도전합니다.

오늘 우리도 아이러니하게 새로운 도피적 영성에 직면해 있는 듯 합니다. 유행처럼 일어나고 있는 공동체 운동과 영성 훈련, 수많은 집회들과 교회 프로그램들이 우리를 삶에서 떠나게 하고 있습니다. 밤낮없는 교회 중심의 열정적인 활동을 위대한 믿음으로 착각하게 해준다든지, 거룩아니면 세속이라는 2분법적인 교회의 메시지들은 우리를 어디론가 떠나서 선교사가 되거나 봉사하는 것을 진정한 영성이라고 착각하게 합니다. 심지어 특별한 복음을 위해 매 주말 온 가족들을 이끌고 수백 km 떨어진 특정교회를 오가는 기현상까지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분명 한 곳에 머물 수 없는 순례자의 삶입니다. 그러나 그 순례는 지리적 순례가 아니라 삶의 순례이며 일상의 순례임이어야 합니다. 나와 일상을 함께 하는 가족과 이웃들의 아픔을 보듬고 그들과 필요를 나누는 그것, 내게 주어진 일상의 업무들을 정직하고 성실하게 수행하는 그것, 내가 주어진 권한 만큼으로 이웃들을 돕고 섬기며, 이로 주어진 급료에 만족하고 살아가는 그것을 진정한 회개의 열매이자, 변화된 삶의 증거라고 요구하는 요한의 도전이야 말로 진정한 영성일 것이라 믿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지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에서는 역동적인 성취감도 느낄 수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것이 회개의 열매라면 우린 그런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같은 입장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산위로 몰려온 수많은 무리를 향하여 향하여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 하셨습니다.(마5:13-) 바닷가로 따라다니는 수많은 무리와 고침을 받았던 그 많은 사람들 모두 집으로 돌아가서(눅5:24) 조용히 자기의 삶을 살도록 요구하셨던 것 복음서 예수님의 행적에서 너무나 자주 그리고 쉽게 발견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은 분명 요한의 시대와 같이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눈 앞에 둔 마지막 시대라는 해석에 누구도 부인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사명은 어찌 하든지 한 영혼에게라도 더 주님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이 사명 성취의 현장은 나의 신앙 순례의 자리인 삶의 자리로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곳에서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구하셨던 회개의 열매를 맺는 것은 그 어떤 종교 행위 보다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가장 멀고 힘든 선교 현장은 바로 내 삶의 자리임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H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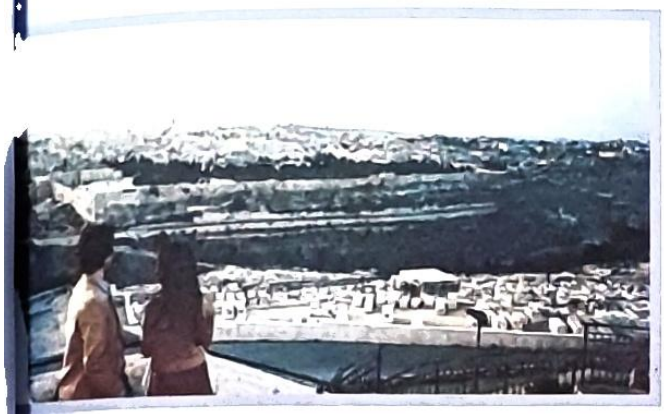


예루살렘에 핀 샤론의 꽃

헐리우드에서 감독으로 활동했던 선교사이자 감독인 홍의봉씨가 있다. 2006년 이스라엘선교에 뜨거운 열정을 갖고 영화를 만들었는데 그 영화가 〈예루살렘에 핀 샤론의 꽃〉이다. 샤론의 꽃은 아시다시피 예수님을 상징하며 샤론의 장미로 알려진 우리나라 꽃 무궁화를 일컫기도 한다.

미국 LA에서 샤론의 꽃이라는 화원을 운영하고 있는 주인공 미나는 유대계 변호사의 사무실 장식을 맡아서 좋은 평가를 받은 가운데 변호사에게 조국의 어머니를 미국으로 이민 오게 하는데 도움을 받으면서 교제를 하게 된다.

엄격한 유대인집안에서 자란 변호사 마이클은 아름답고 신앙심 깊은 미나에게 끌리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미나를 가족식사에 초대하는 자리에서 담대히 간증하는 그녀를 보며 극심한 반대와 함께 아버지는 쓰러지게 되고 마이클은 갈등하게 된다.







그러는 중에 둘은 예루살렘을 여행하게 되어 예수님의 자취를 더듬으면서 확인하는 과정에 유대인 가정의 연회에 갑자기 들이닥친 테러범으로 인해 미나가 몸을 던져 모두를 구하고 희생하게 된다. 그 충격과 아픔 속에 마이클은 예수님의 사랑을 비로소 깨닫는데 임종 직전의 아버지도 회심하는 기적이 일어난다.

지난번에 소개한 〈인카운터〉처럼 유투브에서 소개된 귀한 영상으로 만난 작품인데 한국여성의 영화라는 점이 참 흥미롭다. 아래는 이 영화를 소개한 한인교회평신도 홈페이지인 아멘넷의 보도글을 일부 인용한 것이다

자막과 함께 영어와 한글로 진행되는 1시간 20분짜리 영화는 겨우 몇만불의 제작비에도 불구하고 수준높은 영상과 연기를 보여준다. 영화는 1세대뿐만 아니라 언어와 문화 그리고 종교적인 면에서 2세대도 관심을 가질만한 영화이다. 특히 한인에게 익숙한 LA와 성지인 이스라엘 지역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영화를 감독한 홍의봉감독은 한국과 할리우드에서 감독 생활을 하며 〈캘리포니아 90006〉, 〈코메리칸의 낮과 밤〉, 등을 제작했다. 1982년 주님을 체험한 후 기독영화 제작을 시작하여 〈천국의 비밀〉, 〈휴거〉, 〈예수 천당〉등을 제작했다. 이번 〈예루살렘에 핀 샤론의 꽃〉은 이스라엘을 향한 뜨거운 마음으로 제작한 것이다.

중견여배우 최선자가 특별출연하며 소박하고 온유한 전개로 은혜로운 감동도 없지 않아 이스라엘 선교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매우 유익한 영화가 될 것이다. 유투브에서 이 영화의 제목을 검색하면 언제라도 즉시 볼 수 있음을 알려드리는 바이다.

글 / 김춘배 기자
beller@hanmail.net

내 몸은 쓰레기통이 아니다



세상의 일이 분주해도 사람은 꼭 밥을 먹어야만 한다. 그러나 요즘 사람은 허기가 져 밥을 많이 먹기 보다는 건강과 몸매관리를 위해 밥의 양이 예전과 같지 않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밥 다음에 많이 먹는 음식은 돼지고기, 라면 그리고 소주라고 평가되고 있다. 특히 소주의 양은 한 사람이 한 달에 마시는 분량이 육조 하나쯤은 거뜬히 채운다고 한다.

필자도 저녁 모임이 있는 자리에 가면 그 자리가 밥 먹는 자리인지, 아니면 술을 먹기 위한 자리인지 분간하기 어려울 때가 있다. 괜히 참석했다고 생각하거나 답답하게 느낄 때가 많이 있다. 바른 인성은 밥상머리 교육에서 나온다고 했던 아버지 세대의 교육이 생각난다. 가정에서나 유치원, 학교에서 아이들이 생각 없이 내어 뱉던 거친 말들이 사람의 기분을 상하게 한다. 가끔 어린 아이들과 함께 나도 공중도덕을 해치던 공범이 된다.

사람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인격이자 인성이다. 또한 가정과 학교교육의 실체를 알 수 있는 생활의 기준이자 양식이다. 나는 근 3년 가까이 주 2~3회 정도 아침시간에 카카오톡이나 메신저로 성경말씀을 주변 사람에게 보내고 있다. 이제 조금 더 있으면 쉰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다. 과거와는 달리 세상적인 갑을 관계를 떠나 좋은 사람들과 좋은 음식을 나누며, 좋은 말과 기분을 함께 공유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나이가 들수록 인품과 인성, 지성과 영성을 갖춘 사람들과 나눔의 교제를 하고 싶은 것이다. 내 영혼과 정신, 육체의 건강함을 위해서 각종 모임의 성격과 특성을 잘 파악해서 참석하려고 한다. 내 영혼과 정신, 육체가 지저분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좋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2년 전에 상가건물 계단에서 다급하게 내려가며 휴대폰을 받다가 굴러서 다리를 다친 적

이 있다. 미련하게 휴대폰을 받는 것에 집중한 나머지 부주의하게 되었고 계단에서 굴렀던 것이다. 이후 발목 치료를 위해 병원에서 약 한달 간을 독방에 입원하게 되었다. 수북이 쌓인 업무를 두고 병원에 입원을 했더니 속이 답답하고 불편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고된 업무로 고생을 많이 했으니 잠시 쉬라는 뜻으로 받아들였다. 병원을 휴양지라고 생각하며, 다친 다리를 온천이나 목욕탕에서 찜질을 하고 있다는 생각으로 지냈다.

입원 기간 동안에 병문안을 왔던 사람들이 가져 온 음식은 음료수가 아니면 빵, 피자, 치킨, 떡볶이, 부침개, 순대, 떡 등 마치 백화점 지하의 다양한 음식장르를 연상시킬 정도였다. 오히려 병문안 왔던 다른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줄 만큼 많은 분량이었다. 내가 금복주 모델로 캐스팅 된 것도 아니었는데, 식사 이후에 약을 복용하기 보다는 간식?을 세 번씩 꼬박 꼬박 챙겨 먹었다. 이미 내 몸은 밀가루 과다 섭취에 따른 통통배가 되었고 입원기간 동안 무려 10kg 가까이 살이 찐 망가진 몸이 되었다. (사실 입원 전에도 날씬한 편은 아니었다.) 나의 별명은 북한의 김정일 장남이었던 한국의 김정남, 영어명은 타이어 회사의 캐릭터였던 미쉐린으로 불리워졌다. 식인종이 나를 잡았다면 통돼지를 잡았다고 대박이 났을 것만 같았다. 입에서 살살 녹던 마블링이 나의 몸 구석구석에 활짝 피어났기 때문이다.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적은 음식의 섭취와 운동을 한 결과, 다행스럽게 입원 전의 몸무게를 다시 유지할 수 있게 되었고 지금도 계속 살이 빠지고 있어 나이보다 젊어 보인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다. 가급적이면 밀가루 음식, 특히 짜장면이나 라면 등을 거의 먹지 않으며, 주일날 교회의 점심 메뉴로 등장하던 국수도 그냥 굶어버릴 때가 종종 있다.

음식 과욕을 부리는 것을 경계해야만 한다. 복음찬송 중에 있던 "너는 내 것이다"라는 말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몸이다.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내 안에 계신다. 그래서 우리의 말과 몸을 함부로 대하는 것은 마치 하나님께 반항하는 것과 동일할 수 있다. 우리의 말과 몸은 생명이 다할 때까지 소중하게 다루어야만 하며, 은혜로 우리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하나님께 매일 감사의 예배를 올려 드려야만 한다. 우리의 몸은 세상 쓰레기통이 아닌 귀중한 하나님의 성전이다.

글 / 이관형 기자
artpam@hanmail.net



직장 스트레스 해소법

직장은 직장인에게 가정 못지 않게 삶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그것은 하루의 1/3이상을 직장에서 보내야하고, 생활수단이 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자아실현을 이룰 수 있는 터전이 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따라서 직장은 개인의 생활양식과 건강은 물론 개인의 생활 전반에 걸쳐 크게 영향을 미친다.

다음은 예이츠(Yetes)가 제시한 직장스트레스 해소법으로 건강한 직장생활 유지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1. 신체적 건강을 유지한다.

2. 자신의 장점이나 약점, 성공이나 실패에 처해 있을 때에 자신을 그대로 받아들인다. 자신을 받아들이는 것이 자신이 갖고 있는 기대와 실제로 이루어 놓은 성취 간의 차이를 감소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러나 자신을 받아들이는 것은 정확한 자기평가와 자기지각에 근거해야 된다.

3. 무엇이든지 터놓고 얘기 할 수 있는 친구들을 가까이 한다. 친구들은 퇴자를 당할 위험 없이 연인들과 같은 친밀감을 갖게 해준다. 친구는 대화의 상대자로서 좌절, 분노, 허무감, 소외감 등을 환기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다. 또한 자신을 괴롭히는 상황이나 사람들에 대해서도 통찰력을 갖게 해줄 수 있다.

4. 직장에서 스트레스의 근원을 다룰 만한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행동을 취한다. 일반적으로 스트레스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보다 더 적극적으로 일함으로써 그만큼 자신감을 갖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한편 일에 수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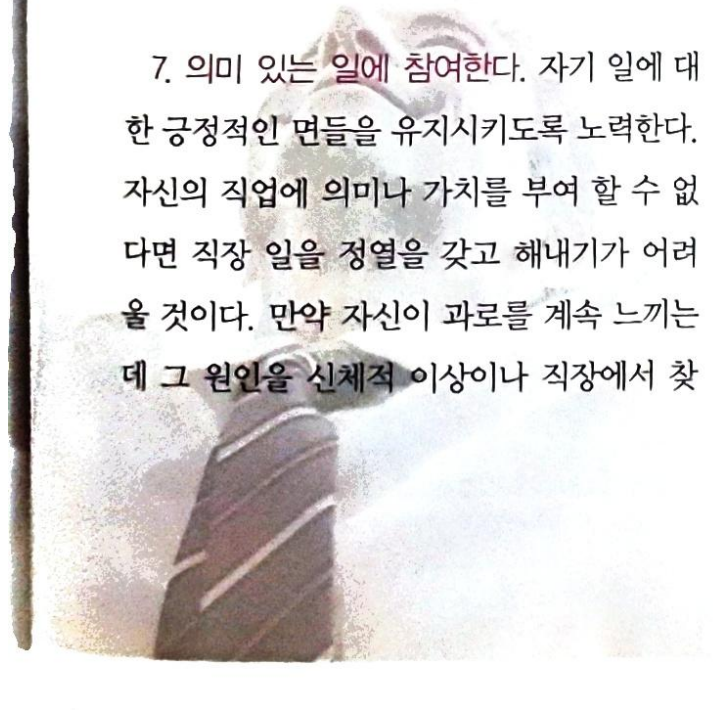
적일수록 타성에 젖어 버려 무력감, 좌절, 분노를 경험하기 쉽고 직업에 대한 불만도 커질 가능성이 높다.

5.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 다른 사회생활을 유지하도록 한다. 사람들은 흔히 직장에서 하던 일을 집으로 가져가는 경향이 있다. 이때 집에서도 일을 연상시켜 집이 이완의 쉼터가 아니라 직장의 연장이 될 수 있다. 일할 때는 일하고 놀 때는 열심히 놀자.

6. 직장 밖에서 창조적 활동에 참여한다. 직장은 생활의 일부에 불과하다. 직장 밖에도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다. 일 이외의 즐거움을 찾을 수 있는 다양한 취미생활을 가꾸어 나간다.

7. 의미 있는 일에 참여한다. 자기 일에 대한 긍정적인 면들을 유지시키도록 노력한다. 자신의 직업에 의미나 가치를 부여 할 수 없다면 직장 일을 정열을 갖고 해내기가 어려울 것이다. 만약 자신이 과로를 계속 느끼는데 그 원인을 신체적 이상이나 직장에서 찾을 수 없다면 혹시 자신의 직업에 관해서 부정적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이켜 보자. 그리고 자신이 평소 갖고 싶었던 직업들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한다. 만약 돈이 더 벌리는 직업과 명예가 더 크게 주어지는 직업 중 선택해야 될 경우라면 선택하기 전에 그 직업이 이런 것 이상으로 의미가 있는지를 스스로에게 물어 본다. 그리고 나서 자신의 직업이 기본적으로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와 동떨어지거나 그 직업에 의미를 부여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그 직업을 포기하는 것도 고려해 본다.

8. 개인적 스트레스에 대해서 과학적(분석적) 방법을 적용해 본다. 자신의 스트레스인자를 더 잘 인식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한다. 예를 들어 일기 혹은 자가평가표(체크리스트)를 이용하거나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와 같은 전문가를 찾아서 상담해 본다.



글 / 이종성 집사(사랑정신건강의학과의원 원장)

알려드려요

춘천홀리클럽

1. 홀리클럽 정기기도회
일시 : 매 짝수달 셋째주 화요일 오전 6:30
장소 : 지도 목사님 또는 임원교회 순회 시행
회비 : 헌금으로 진행

2. 춘천홀리클럽 카페 많이 이용해주세요.
주소 : http://cafe.daum.net/ccholly
또는 다음카페/춘천홀리클럽

춘천성시합창단 운영

정기연습 : 매주 월요일 오후7시
장소 : 사랑감리교회
010-2529-6193 이기영 단무장

춘천성시무용단원 수시모집 (교회 방문수업 가능)

대상 : 몸찬양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기 원하는 분들을 모집합니다.
일시 : 일주일에 두번 오전반 저녁반 수업합니다
장소 : 후평2동 796-11번지
010-9333-8753 단장 유은경권사
010-3180-5330 지도 김귀선권사

헐몬산악회(기독교동아리)회원 모집

일시 : 매주 토요일 100대 명산 및 춘천분지 종주 산행
주소 : cafe.daum.net/ccjmm
010-8798-8782 정학수 장로

교역자 축구선교회 회원모집 포이맨

일시 : 매주 월요일 오전8시
장소 : 공지천 잔디구장
010-5372-6200 지용찬 목사

목회자 족구회원모집

일시 : 월~토요일 매일 오전 6시
장소 : 공지천 족구장
011-361-1995

한마음 조기탁구회

일시 : 월~토 매일 아침 6:30부터
장소 : 탁구세상(강원대 후문앞 언덕)
회비 : 월4만원
010-3375-4323

춘천쏠리데오 사모합창단 수시모집

대상 : 목회자 사모
장소 : 춘천은혜교회
자격 : 연령제한 없음, 찬양을 사모하는 분
010-2492-4316 회장
010-6378-2261 지휘자

새벽날개 워십선교단 화요모임 헌신자 모집

대상 : 현대무용 워십찬양율동에 관심을 가지고 배우고 헌신하기를 원하는 모든 분
일시 : 매주 화요일 저녁 8시20분
장소 : 우두동 벧엘교회 2층 주일학교 예배강당
010-9495-1029 한혜영 집사

춘천시 목회자 색소폰 동아리 모집

대상 : 춘천시내에 계시는 목회자
초보자 환영, 무료
일시 : 매주 월 오후2시~5시
장소 : 나눔교회
010-5521-3779

행복재가장기요양기관

*방문요양, 목욕(춘천지역기관설치 제1호)
65세 이상 치매,중풍,장애등 요양보호사의 돌봄이 필요하신 분
011-366-4972, 033-255-2191
춘천제일감리교회 탁광희 장로

장수방문요양센터(기관)

*장기요양 인정 신청 제출,
등급판정받기 원하시는 분
019-9138-4452, 033-251-4452

탁구대 무료기증 받습니다

예수제자교회 010-3771-0834

춘천 호스피스

사랑과 믿음으로 말기암 환자를 돌봐드립니다.
대상 : 말기암으로 진단 받은 환자
033-261-5652 입원상담

청소년 인터넷 중독 무료상담 및 심리치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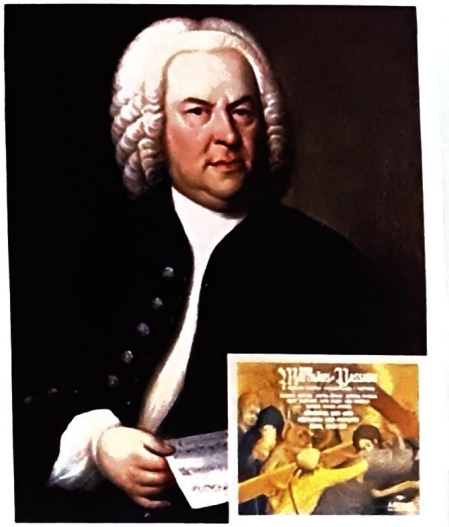
강사 : 김옥련(인터넷중독 전문상담사, 기독교상담 석사과정)
장소 : 춘천샘솟는장로교회 부설 119상담센터
070-4383-4720, 010-7567-5012

영성회복 축복 성회

일시 : 3월 23일~25일
낮 11시, 밤 7시30분
강사 : 이윤구목사(강북명성교회담임)
장소 : 오순절기도원(춘천시북산면상추곡1길33)
010.8263.0190(차량이용및 문의전화)

춘천동부교회 음악교육부 1학기 신청안내

개강 : 3.12(목) ~ 6. 4(목) 각 과정 12주 수업
과정 : 첼로, 플룻, 바이올린, 우크렐레, 피아노, 오르간,
기타, 드럼, 신디, 성가독창, 성가합창
임창호 부장 010-2737-7111 / 장동훈 부감 010-6375-8874



요한 세바스찬 바흐 (JOHANN SEBASTIAN BACH : 1685–1750)의 마태수난곡 〈MATTHAUS PASSION, BWV 244〉 39 나의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ALTO;ERBAME DICH, MEIN GOTT, UM MEINER ZHREN WILLEN!〉

봄내에 봄의 기운을 알리는 비가 내리기도 했지만 여전히 쌀쌀한 사순절 기간입니다. 아직 주님의 부활을 기다리는 기간이라 특별히 수난곡들을 들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바흐의 수난곡 중에서 남겨진 것은 〈요한 수난곡〉과 〈마태수난곡〉이있습니다. 특히 더 사랑받는 〈마태수난곡〉은 마태복음 26장과 27장의 그리스도의 고난을 중심으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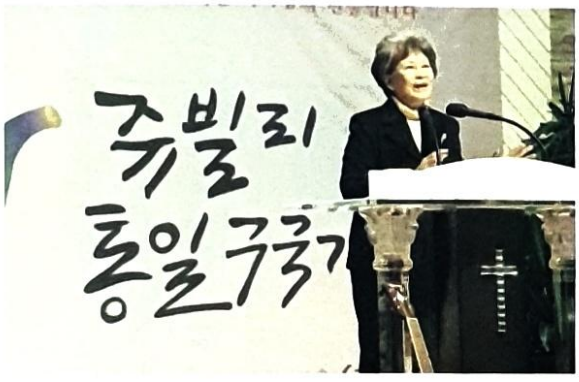
제1부는 예수님이 고난을 예언하는 장면에서부터 감람산에서 붙잡히시는 장면까지입니다. 제2부는 체포되신 후 빌라도의 법정에서 골고다 언덕 위의 십자가와 무덤에 누이시기까지를 합창과 아리아로 이어갑니다. 대단원의 막은 주님의 안식을 기도하면서 마지막 합창 "우리는 눈물에 젖어 무릎을 꿇고…" 〈WIR SETZEN UNS MIT TRANEN NIEDER〉를 끝으로 내려집니다. 가장 아름다운 선율은 제39곡인 알토 아리아로서 "나의 하나님, 나의 눈물을 보아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인데, 통곡하는 시몬 베드로의 눈물을 노래하면서 바이올린 솔로의 오블리가토가 더욱 마음을 애잔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또 한 곡은 .12세기의 위대한 언어마술사였던 클레보의 베르나르가 시를 쓴 " 오,거룩하신 주님 (상하신 머리)"에 하슬러 가 곡을 붙혀 불려졌던 수난절 합창곡 (PASSION CHORALE)을 편곡해서 사용했습니다.

〈마태수난곡〉은 마태복음을 텍스트로 해서 아리아는 피칸더 (PICANDER, 본명 CHRISTIAN FRIEDRICH HENRICI)가 자유롭게 시를 쓴 가사에 곡을 붙였습니다. 초연은 바흐가 44살이 되던 해 1729년 성금요일 (4월15일)에 라이프치의 성 도마 교회에서 연주되었고 1736년에 마지막으로 완성되었습니다. 그 후 바흐가 서거한 이후에 한 번도 연주되지 않았던 이 오라토리오를 백주년이 되었을 때 당시 20세였던 멘델스존이 거의 2년을 준비해서 400명의 합창단과 거의 무보수로 참여한 관현악단의 도움을 받아 베를린에서 1829년 3월 1일에 또 다시 무대에 올려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의 스승이었던 챌터는 3시간이나 연주되는 지루한 곡을 누가 들으러 오겠는가 염려했으나 나중에 그 날의 연주에 대해 얼마나 좋았는가라는 편지를 친구 괴테에게 보낸 일화는 유명합니다.

사순절을 보내며 오랜 만에 바흐의 〈마태수난곡〉을 들으시면서 경건한 마음을 추스려 보시지 않겠습니까? 봄비와 함께 부활의 아침을 기다리며 만천리에서 드리는 다니의 음악이야기였습니다. 샬롬!

글 / 김금찬 선교사

제 38차 쥬빌리통일구국기도회 춘천모임



제38차 쥬빌리통일구국기도회 춘천모임이 2월 9일(월) 저녁7시에 주향교회(이병철목사)에서 조영춘목사(예광교회)의 사회와 JL클럽(강수인목사)의 은혜로운 찬양과 남준섭장로(순복음춘천교회)의 대표기도, 탈북자사역을 하시는 박상희전도사(강화나오미집)의 시106편 23절 말씀으로 "화목케하는 중보기도자"(시106편 23절)라는 제목의 말씀선포, 이병철목사(주향교회)의 기도회 인도가 있었고, 최상도목사(사암교회)의 헌금기도, 현홍만목사(중부교회)의 축도로 기도모임이 마무리되었다. 박상희전도사는 말씀을 통해 "중보기도자는 5대양 6대주를 비행기 없이 들어가는 특권이 있으며, 하나님나라와 세상나라 사이에서 갈라진 틈을 막아서는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중보기도자가 있음으로 나라가 살고 중보기도자가 없음으로 죽는다. 특별히 북한선교는 아비의 마음 어미의 마음이 되어야 감당할 수 있다"고 선포하였다. 기도회를 인도한 이병철목사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내려고 했던 선진들을 따라서 앉으면 기도하고 일어서면 전도하고 누우면 회개하는 삶을 살아내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또 북한을 아비처럼 어미처럼 감당하게 해달라고" 뜨겁게 기도하고 마쳤다. 3월 39차 춘천모임은 3월 9일(둘째주 월)이며 강사는 조칠수목사(하나의 교회)이다.

제직훈련 세미나

N+교회사역연구소 주최로 2015년 춘천 강원지역 교회부흥을 위한 제직훈련 세미나가 2015년 2월 3일(화) 춘천안디옥교회(유진형목사)에서 열렸다. 교회부흥의 주역(손달익목사,서울서문교회), 4천배의 복을 누리는 제직의 비밀(오정호장로, 서울대광교회), 한주에 한사람 이상 전도하는 제직(김인하목사, N+교회사역연구소)의 강의로 세미나가 진행되었고, 2015년 세워진 제직들이 참여하여 유익한 시간이 되었다.

아파트전도세미나

아파트전도세미나가 교회사역개발원 주최, 기하성 강원지방회(하기철목사) 주관으로 2월 5일(목)에 순복음열린교회(신성균목사)에서 아파트전도 전문가 정상용목사(일산예향교회)의 강의로 1일 집중세미나로 열렸다.



춘천성시 편집회의

2015년 3월호 196호 편집회의가 2월 4일(수)에 누보식당에서 있었다. 그간 편집위원으로 수고하신 고재만목사(평안교회)가 사임을 하고, 성낙환목사(은혜감리교회)와 안세현전도사(민들레교회)가 편집위원으로 새롭게 위촉이 되었다.



동성애를 바로알자! 집회

동성애를 바로알자! 집회가 2월 15일 (주일) 오후3시에 온누리교회(김창환목사)에서 김기현전문강사의 강연으로 있었다. 이번 집회에는 건강한 가정 깨끗한 도시를 만들고자 하는 춘천성시화운동본부 주관으로 열렸는데, 청소년 청년들이 많이 참여하여 성황을 이루었



다.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동성애 관련내용을 전문가가 정확히 짚어 주었고, 올바른 분별로 다음세대를 지켜나가는 것이 오늘날 크리스찬의 몫임을 확인하는 시간이었다.

통일광장기도회

제35차 통일광장기도회가 2월 23일(월) 저녁8시에 석사교하천무대에서 있었다. 이날에는 L선교사님이 에스겔 36장 32~38절 말씀으로 메시지를 해 주셨는데, 황폐했던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것은 하나님이시지만, '그래도..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는 말씀에 순종하자고 하시며, 1-2년 내에 우리나라가 통일의 승기를 잡지 못한다면 아주 오랫동안 통일은 요원할 것으로 보신다며, 통일을 위한 기도가 특히 중요하고 절실한 때라 하셨다. L선교사님은 필리핀과 중국 연변지역에 가나안농군학교를 정착시키셨으며, 올해 3월에는 러시아 연해주 우스리스크 근처에 가나안농군학교를 개척하러 떠나신다고 한다. 특히 연해주의 가나안 농군학교가 통일 후 한민족이 연합하여 복음을 서진해나갈 때, 중요한 교두보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중보를 부탁했다. 이날도 하나님의 명령인 통일을 위해, 거룩한 대한민국과 다음세대를 위한 중보기도가 뜨겁게 진행되었다.

취재 / 성시매거진 편집부

강원대학교병원 완화의료센터

말기암환자의 남은 삶을 의미있고 평안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전인적 서비스

담당자 연락처 : 033.258.9060~2

강원대학교병원 완화의료병동은?

- 말기암 환자의 암성통증 및 증상을 관리합니다.
-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성직자, 자원봉사자 등 여러분야의 전문가들이 말기암 환자에게 필요한 돌봄을 제공합니다.



돌봄 유형

- 암성 통증, 신체적 증상 조절, 가족문제 상담 및 중재, 삶의 질 향상 프로그램 (기념일 축하,소원들어주기), 영적상담과 종교적 돌봄, 심리적지지, 사별가족 지지모임

특별프로그램

- 다도, 미술, 원예, 스포츠마사지, 영화상영, 힐링노래방, 음악회, 가족지지모임

강원대학교병원 자원봉사자 교육



강원대학교 완화의료팀은 말기암환자와 가족의 고통을 나누는 자세를 배우고, 완화의료에 대한 이해 및 자원봉사자로서의 역량, 함양을 위해 자원봉사자교육을 하고자 합니다.

- **기 간** 2015년 4월 16일(목)~4월 17(금)
- **장 소** 어린이병원 2층 네트워크실
- **대 상** 일반인
- **활동 내용** 원예요법, 미술요법, 다도요법, 스포츠마사지, 목욕봉사, 화초관리, 말벗
  (그외 재능기부 가능 여부는 상담 시 문의 해주세요)
- **모집 기간** 2015년 4월 10일(금)까지
- **문의 사항** 033.258.9060

제공 : 명절선물, 무료주차권, 봉사시간 지연 시 식권

제9회 성시합창단 특별기획공연

THE CROSS








성시합버오케스트라


춘천성시합창단/예사랑합창단

2015. 3. 28(토) 오후 7시
춘천문화예술회관

R석 50,000원
S석 20,000원

주최. 춘천성시합창단 / 예사랑합창단
주관. 춘천성시합창단
후원. 춘천기독교연합회 성시화운동본부 춘천홀리클럽 춘천시 강원일보 CBS춘천

*지정예매처 | 명곡사(T.254-0623) 음림악기사(T.252-5041) 광장서적석사점(T.263-6582) 광장서적후평점(T.252-6585) *문의 및 예매 | 춘천성시합창단 010-2529-6193 / 010-2291-8385

GMS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세계선교회

GMS 춘천 LMTC

제7기 훈련생 모집

LMTC는 GMS(Global Mission Society)산하 평신도 지역선교사훈련원(Local Missionary Training Center)이란 뜻으로,
LMTC 본부의 표준커리큘럼을 사용하여 훈련하며, 수료자들은 총회세계선교회 GMS단기선교사로
파송 받을 수 있는 특전이 주어집니다.

훈련기간 2015년 3월 14일 ~ 12월 3일 (24주) 매주 목요일(저녁 7시30분) 2시간

훈련장소 온누리교회 3층 세미나실 (춘천시 만천로 143번길 100-51 / 033.242.4189)

훈련대상 선교에 관심 있는 자, 목회자, 청년, 평신도

훈련비용 한 학기(12주) 12만원

신청문의 양성찬 목사(010.5305.0763), 남궁역 집사(010.8902.3343)

강의내용 선교적 교회론/ 선교와 문화이해/ LMTC 선교정책과 방향/ 개혁주의 신앙과 선교사의 삶/ 상황화 선교와 선교 전략/ 변화하는 선교 필드의 이해/ 선교와 문화이해II/ 선교의 성경적 기초/ 세계선교 역사/ 기독교와 샤마니즘/ 도시선교/ 단기선교의 장단점과 사역실제

* 2학기 12주는 각 선교지의 선교사를 초청하여 실제적인 필드 사역에 대한 강의 계획



상설 IMTI

훈련생모집

예수제자운동 부설 jmti 국제선교훈련원

※ 훈련요람 ※

훈련기간

- 봄학기_ 3. 9 (월) ~ 5. 29 (금) 12주
- 여름학기_ 7. 6 (월) ~ 24 (금) 3주
- 가을학기_ 9. 7 (월) ~ 11. 27 (금) 12주

** 대상 : 선교 관심자 및 선교 헌신자

문의 및 접수처

200-852 춘천시 동면 만천리 555-1 국제선교훈련원(IMTI)
T. 033/243-6701~4 F. 243-6705
E. jdmnmission@hanmail.net

Fellowship for Inheritance to Muslim



FIM 이슬람선교학교

일 시 **2015. 3. 17 – 5. 26** (매주 화요일)
시 간 pm 7:00 - 9:00
장 소 춘천사랑의교회 (강원도 춘천시 퇴계동 1146-3 / T. 033-241-8017)
접 수 전화로 등록을 받습니다. (1599-5591, www.fim.or.kr)
대 상 이슬람선교 관심자, 목회자, 평신도
훈련비 15만원 우리은행 1005-201-283743 (FIM 국제선교회)

강의계획

1 기독교인은 왜 이슬람을 알아야 하는가
2 이슬람과 기독교 무엇이 다른가
3 이슬람 원리주의와 지하드
4 무슬림도 받을 수 있는 하나님 사랑
5 이슬람과 여성
6 예수와 무함마드 비교연구
7 유럽의 이슬람
8 꾸란과 성령
9 한국이슬람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전망 / 수료식

강사진



유해석 목사
총신대학교
영국웨일즈대학교 신학부
現 FIM선교회 대표
저서 "우리 곁에 다가온, 이슬람" 외 다수



이동주 교수
이화여자대학교
독일 튀빙겐 대학교 신학박사
現 선교신학연구소 소장
저서 "현대선교신학"외 다수



소윤정 교수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철학박사
現 SIM선교회 자문위원
現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교수
저서 "꾸란과 성령"외 다수



차경준 연구원
칼빈대학교
총신대학교 선교대학원
FIM선교회 이슬람연구원



FIM국제선교회 춘천지부
이슬람선교학교장 윤대영 목사
(춘천사랑의교회 담임)

춘천사랑의교회 오시는 길



FIM 국제선교회는 이슬람권의 복음화를 위해 선교사를 파송하고, 한국교회가 이슬람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질 수 있도록 사역하는 단체입니다.
서울시 영등포구 도림천로 21길 28 TEL. : 1599-5591 홈페이지 : www.fim.or.kr

"여러분이 성시화운동의 기수입니다"

춘천성시화운동 후원에 동참하는 단체 및 개인을 소개합니다.

개인

강현숙 고순덕 곽해옥 권세희 권영일 권영자 권혁자 김경아 김관수 김기선 김명자 김미경 김복심 김상욱 김성희 김숙희 김순덕 김연숙 김영관 김영명 김영태 김영희 김은주 김은철 김은희 김정미 김정진 김종은 김종익 김종찬 김지영 김진구 김춘화 김춘희 김향란 김현덕 김현정 김현철 김혜숙 김화분 김희경 노수자 문현숙 민경원 민관식 민병임 박갑출 박경미 박금화 박노향 박덕남 박동환 박만규 박명관 박명선 박민수 박순배 박완영 박윤덕 박제자 박찬옥 박필상 박혜성 배진철 배혜영 서묘석 서성진 석지찬 성숙자 성화숙 손임순 송갑수 송영인 송향순 신옥자 심경하 심상만 심효선 안순연 안중계 안현주 양혜경 어금옥 엄근혜 연송흠 연정화 염은희 오순자 오흥금 오흥수 원희정 유 근 유근창 유동열 유성현 유용균 유재란 유재형 유정순 유정희 윤성자 윤애자 윤은옥 이갑용 이광필 이규현 이뇌연 이명선 이명숙 이명순 이명화 이무식 이문희 이미경 이병일 이성숙 이세희 이순자 이승희 이연화 이영숙 이영준 이영진 이용숙 이윤규 이은경 이은준 이종상 이주영 이진주 이철호 이태우 이형식 임덕수 임우선 임재철 임창수 장기영 장동자 장소영 장소희 장창순 전옥희 정구영 정국환 정규시 정성옥 정은순 정은주 정은하 정인숙 정인순 정재인 정재현 정종승 정진호 정치웅 조경대 조기숙 조남진 조돈산 조명숙 조명호 조소현 조수지 조정화 주명호 주신자 지윤성 차경자 차재옥 최귀숙 최선이 최예은 최옥순 최종대 탁광희 표복순 하명수 한명수 한정연 한희현 함종현 허 봉 허서구 허순영 허인영 현재용 홍기택 홍순복 홍인숙 홍택기 황기현 황병찬 황재국 황호석

교회

갈릴리교회 거성침례교회 그말씀교회 나눔교회 나눔과섬김교회 늘사랑교회 동신교회 명성교회 바나바교회 사랑의교회 사랑침례교회 사암교회 석사교회 새춘천교회 소양제일교회 순복음제일교회 순복음하나교회 순복음춘천교회 신북성결교회 신성감리교회 열린순복음교회 예담교회 예수촌교회 옥산포교회 온누리교회 우두감리교회 은혜장로교회 주의숲교회 주향교회 춘천광명교회 춘천광염교회 춘천그리스도의교회 춘천동부교회 춘천우리교회 춘천일신장로교회 춘천제일장로교회 춘천침례교회 한빛교회 화목교회 후평제일교회

기업

거두주유소 베드로선교센타 영광한의원 JDM 춘천YWCA 춘천와이신협 행복재가요양기관

모든 후원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후원 신청 및 문의 033)-256-12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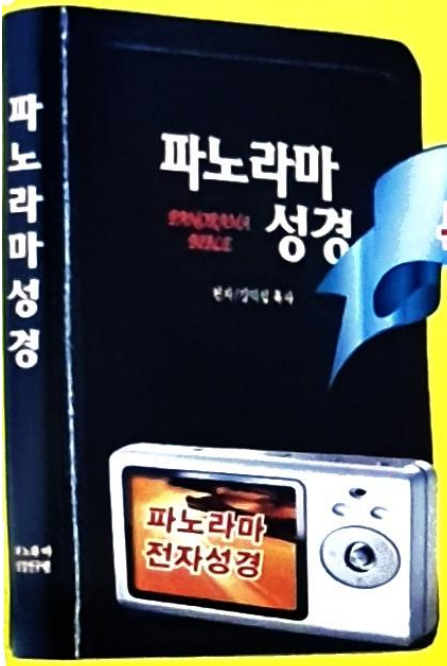
〈 후원계좌 안내 〉

신협 131-005-937566 춘천성시화운동본부
농협 172242-51-085114 춘천성시화운동본부

♥ 명단에 누락이나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연락해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목회자들이 극찬한 최고의 성경세미나" (기독교신문)

DVM 파노라마 성경 검색



* 20년~ 역사의 목회자 성경 세미나 1순위!

목회자 파노라마성경 공개 세미나

왜 목회자들이 파노라마 성경을 필수코스라 하는가?

춘천지역

일시: 3월16일(월)~17일(화)

장소: 춘천중앙교회 (권오서 감독)

강원도 춘천시 퇴계동 202

033-259-3000

5대 본질, 5대 잡기

✠본 「파노라마성경」은 강덕섭 목사가 편저한 것으로 검증이 까다로운 대한성서공회의 허락을 받아 출판된 역작이라는게 관련 교계의 평가다.(국민일보)

✠파노라마 전자성경은 본 연구원이 자체 개발한 것으로 성경 전체를 10~12시간만에 맥을 잡아주므로 누구나 1일 1독을 할 수 있어 하나님의 계시의 다양한 맥이 열립니다.(한국 최정상급 성우 녹음)

☞ 수건벗고 성경보고, 수건벗고 설교하라.

✠10년 전에 파노라마성경이 좋다는 소식은 들었지만 목회의 바쁜 일정으로 미루어 오다 은퇴 후에 파노라마성경을 참석해보니 이제서 공부하는것이 정말 후회되고 너무 억울하다
이것은 어떤 경우에라도 빨리 꼭 해야하며 내 목회경험으로 목회자가 1순위로 해야 할 일이다. (원로 - H목사)

✠많은 성경공부를 접해 보았지만 파노라마 성경세미나처럼 좋았던 것은 없었습니다. 체계적이고, 조직적이며, 성경 전체와 부분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 한마디로 "탁월하다" 라고 봅니다. (K목사)

✠성경을 가장 정확하고 올바르게 보려면 성경 원문에 표기가 없는 장별로 보면 안되고, 성경을 받아 기록한 자의 양식으로 공부하는 파노라마성경이 가장 정확하다. 참으로 귀한 보배를 만났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꼴이 되면 안된다. (통합 - H목사)

✠성경의 방대한 내용이 파노라마성경 세미나를 통해 말씀이 깊이 열리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 이는 대필양식적으로 잘 정리된 파노라마 성경이 있기에 가능했고 만약 이 책이 없이 이정도의 양을 습득 하려면 20년이 걸려도 어려울 것이다. (합동-P목사)



강사 / 강덕섭 목사
- 흰돌교회 담임
- 파노라마성경 편자
- 파노라마성경 연구원장



* 시 간 : 첫째날 - 오후 1시~6시 둘째날 - 오전 10시~6시
* 대 상 : 목사, 사모, 전도사, 신학생 (평신도는 참석 할 수 없음)
* 등록비 : 5만원(부부 : 8만원) - 파노라마성경(사복음서) 제공

(파노라마 성경 연구원) 문의 010-9135-8541. 010-9246-7851

www.panorama-bible.com 홈피로 바로가기 (클릭)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요한 11:25-26

부활절 연합예배

일시 2015년 4월 5일(주일) 새벽5시

장소 호반체육관

강사 지용찬 목사 (춘천기독교연합회장)

춘천기독교연합회